



**정부, 안보·경제·민생 안정적 관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

기획특집 겨울여행, 취향대로 즐겨라

새해 기대되는 스포츠 빅 이벤트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6,470원

2017년
시간급
최저임금

이것만큼은 알아!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은..

국번없이

1350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참고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8월 월급 1,475,120원을 받았을 경우)



내가 받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월급명세서(2017년 8월)	
기본급	1,200,000 원
상여금	100,000 원
직무수당	100,000 원
시간외수당	55,120 원
가족수당	20,000 원
급여 계	1,475,120 원

- ※ 추려내는 기준
1.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
 2.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은 제외(시간외 수당 등)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제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1,200,000 원
직무수당	100,000 원
임금 계	1,300,000 원
	추려 낸 임금



추려 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17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시간당임금 환산방법

$$\text{추려 낸 임금} \div \text{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인 경우에는 209*시간 적용

판단

$$1,300,000\text{원} \div 209\text{시간}^* \approx 6,220\text{원} < 6,470\text{원}$$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52주 + 8시간} ÷ 12월

최저임금 위반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겨울여행을 다녀와서



정여울
문학평론가

● 나는 여행을 사랑하지만 사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다. ‘떠나고 싶은 마음’과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매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다. 나의 여행은 곧잘 ‘무언가 글을 쓰기 위한 사전답사’가 되어버릴 때가 많아서, ‘그곳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떠났다가도 ‘거기 뭔가 글을 쓸 만한 소재가 없나’ 열심히 찾아다니는 종종걸음이 되어버리곤 한다. 해변에 파라솔을 놓고 선베드에 누워 느릿느릿 책을 읽는, 그야말로 제대로 쉬는 여행은 거의 해보질 못했다. 겨울은 글을 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기에 더더욱 ‘여행 그 자체를 위한 여행’은 떠나지 못하던 중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오직 여행만을 위한 여행’은 아니었지만, 진주에서 이틀 연속으로 강연 일정이 잡혀 진양호 근처에 머무르게 되었다. 우선 처음 보는 진양호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겼다. 서울에서 진주로 가는 길은 꽤 멀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진양호의 고요한 밤 풍경을 배경으로 유리알처럼 맑은 겨울 하늘 아래로 쏟아지는 별빛의 향연을 볼 수 있었다.

그다음 날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진주성 안에 있는 축석루로 향했다. 진주성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온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듯한 진주성 안에는 축석루, 호국사 등 볼거리가 풍부할 뿐 아니라 그 안을 걷는 것 자체가 과거를 향해 떠나는 타임머신을 탄 느낌이 들었다. 진주성 성곽 아래로 눈부시게 펼쳐지는 남강의 절경을 매일 볼 수 있는 진주시민들이 부러울 정도였다. 일 때문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진양호의 새벽, 아침, 낮, 밤을 살살이 볼 수 있었다는 것, 진주성 구석구석을 옛사람의 눈빛으로 차근차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다음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진주에 이어 대구에서 강연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화를 해보니 내가 스케줄을 잘못 기억한 것이었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케줄 표에 일정을 표시해놓았는데, 그만 전혀 다른 날짜에 표기를 해놓는 실수를 한 것이었다. 낭패였다. 하지만 이와 이렇게 된 것 ‘더 멀리, 더 화끈하게 떠나보자’는 생각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오니 오히려
사진을 덜 찍게 되었다.
실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 풍경에 취해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또다시 달려가고 싶다. 이번엔 일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행 자체를 위한 여행’을 꿈꾼다.”

퍼뜩 들었고,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지만 매번 미루고 미루던 남해 금산 보리암이 떠올랐다. 이성복의 시 ‘남해 금산’이 저절로 떠올랐다.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 어느 여름 비 많이 오고 / 그 여자 울면서 돌 속에서 떠나갔네 / 떠나가는 그 여자 해와 달이 끌어주었네 / 남해 금산 푸른 하늘가에 나 혼자 있네 / 남해 금산 푸른 바닷물 속에 나 혼자 잠기네.’

사랑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린 한 남자의 절절한 고백이 ‘남해 금산’에 잠겨 있는 바로 그곳으로. 보리암은 과연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절경이었고, 금산을 오르는 길 곳곳이 영원히 눈 속에 담아두고 싶은 풍경으로 가득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오니 오히려 사진을 덜 찍게 되었다. 나는 사진에 풍경을 구겨 담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실로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 풍경에 취해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다녀온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달려가고 싶다. 이번엔 일 때문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남해 금산을 위한 여행을, 아무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행 자체를 위한 여행’을 꿈꾼다. **G**



CONTENTS

01 이 주의 공감

04 독자마당

06 공감 사진관

이슈정책

- 08 **안전**
정부, AI 확산 방지에 총력
위기단계 '심각' 상향... 현장점검 강화
- 10 **황교안 권한대행 안정적 국정관리 행보**
"국정 공백 방지에 총력"
안보·경제·민생안정 차질없이 수행
- 12 **범정부 국정 정상화 주력**
북핵·동맹관계·민생 안정적 관리
협업체계 가동해 국민 불안 해소

기획특집 | 내 인생의 겨울여행

- 15 **삶의 심표 겨울여행, 취향대로 즐겨라**
- 16 **강화 동검도, 노을과 함께한 여행**
장엄한 낙조·갯벌에 뿌리박은 갈대
그래서 따뜻하다, 외롭지 않다
- 18 **땅끝마을·부안 솔섬 낙조... 정동진·호미곶 일출**
해가 지고 뜨는 바닷가에서
다시 희망을 새긴다
- 20 **경기 양평 구둔역 폐역**
녹색 철길에 첫사랑이 내려앉다
- 22 **노스탤지어 간직한 간이역 Best 3**
시간이 멈춘 선 그곳, 추억도 머물고 있더라
- 24 **용평·강릉 경기장 체험... 안목 커피거리... 정선 고드름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미리 즐겨요



2016. 12. 19

No.384 | 통권 485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다. 테스트이벤트와 손님맞이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12월 14일 개관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스포츠동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6. 12. 1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조윤선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삼화인쇄
구독문의 02-2625-3294, shgwak@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38



52



54

26 전국 스키장·아이스링크장 잇따라 개장
“때가 왔다, 헬멧 안고 신나게 달려볼까~”

28 뜨끈한 노천 스파... 짜릿한 워터슬라이드... 파도풀
“눈이 평평 오는데 첨벙첨벙 물놀이 어때요?”

30 내가 가본 특별했던 겨울여행
“열심히 살아온 한 해, 나에게 주는 선물”

정책 일반

32 민생 안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름·겨울철 ‘요금 폭탄’ 걱정 끝!

34 6년간 475억 원 투자해 탄소자원화 기술 실증
2030년까지 온실가스 年 2500만 톤 감축
16조3000억 원 경제적 가치 창출

3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추진
번식장 허가제로...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37 민생 안정
사회취약계층 39만5000명
가스·통신요금 등 감면 신청하세요!

중점기획 | 2017 트렌드

38 2017 대한민국 별별 트렌드
팩트광·‘꿀’소비·노멀크러시·위너 소비...
결론은 개인의 취향!

40 2017 세계 별별 트렌드
음성통화보다 ‘메시지 소통’이 대세
인공지능·가상현실 실용화 성큼

문화, 교양, 인물 & 라이프

42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보물展’
이집트 미래, 영원한 삶 꿈꾸다

44 국제기능대회 은메달리스트 설계 전문가 김종희 제이디오 대표
“인생처럼 복잡 미묘한 설계도면
0.1m 오차도 없이 그려내야죠”

46 전업주부 19년 만에 의류 쇼핑몰 운영 양수 씨
“처음 하는 사회생활 고되지만
이제야 살아가는 법 터득해요”

48 문화, 지금
아시아 한류의 미래
‘현지화’와 ‘쌍방향’ 전략이 필수다

50 2017년 WBC(야구)·U-20 월드컵(축구)·평창 테스트이벤트 열려
흥미진진한 빅 이벤트에 스포츠 팬 시선 쏠린다

52 단순·소박·화목·편안함 추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찾기
덴마크식 슬로 라이프 ‘회계’가 뜬다

54 신나는 겨울방학 | 겨울 축제
전국 곳곳 체험 행사·볼거리 풍성
“추워야 물렀거라, 우리 가족 나가신다”

56 신나는 겨울방학 | 체험 프로그램
박물관·미술관 새해맞이 이벤트 다양
“손잡고 봐야지, 재미난 잔치”

58 강추위 몰려오고 술자리 잦은 연말 건강관리법
숙면·슈퍼푸드로 면역력 높여라

60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시행
휴면계좌 조회·이체·해지 편해졌다

61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독감
예방접종 필수... 증상 의심되면 즉시 병원 방문

62 생활과학 이야기

63 책로공감

64 소통과 공감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korea.kr/gonggam정책브리핑 www.korea.krwww.tapzin.com/appridibooks.comkoreablog.korea.kr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삼세판 퀴즈

382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나눔국민대상 02 창조경제박람회

03 도서정가제

당첨자

김민수(강원 춘천시 후석로)

정윤경(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노병진(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박보경(울산 동구 월봉10길)

권기훈(경기 군포시 번영로)

2016 한식문화 미술 공모전

**공모 내용** 한식의 맛과 멋을 그린 평면화 또는 그릇, 메뉴판 디자인 시안 제작**응모 자격** 제한 없음(단, 디자인 시안은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자만 가능)**접수 기간** 2017년 1월 15일까지**응모 방법** 50호(116.8×91cm) 이내 작품을 공모전 누리집(www.hansikart2016.co.kr)에 올림**수상 혜택** 부문별 최우수상 1편에 각 200만 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여 등**주 최** 문화체육관광부**문 의** 공모전 운영사무국(02-6939-8298)

2017 국민기자단 모집

**공모 내용** KTV국민방송의 기자, PD, 카메라감독, 작가, 아나운서로 활동할 일반 국민 모집(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활동)**응모 자격** 부문별로 다름(누리집 참고)**접수 기간** 2017년 1월 9일까지**응모 방법** KTV국민방송 누리집(www.ktv.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tvkukmin123@gmail.com)로 보냄**수상 혜택** 취재활동비 지급, 우수 국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여 등**주 최** KTV국민방송**문 의** KTV 정책콘텐츠부(044-204-8459, 8151)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9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01 일반 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은 인적은 드물지만 나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어 문학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00여 개가 있고, 그중 24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02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 중 소액 비활 동성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는 다른 계좌로 간편하게 이전한 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03 덴마크의 라이프스타일을 칭하는 ○○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느긋하게 어울리는 친교 활동을 말한다. 감사하는 마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기쁨, 화목함, 따스함 등을 소중하게 여긴다. 남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84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29일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공감 카툰



겨울여행도 내 나라 여행이 제일입니다.

해내는 대한민국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추위보다 무서운 무관심 속에서 하루 평균 34명의 홀몸노인이 고독사한 채로 발견된다. 현재 우리나라 홀몸노인 수는 125만 명이다. 2035년엔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혼자 있다 외로이 생을 마감하는 홀몸노인이 2014년 1008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몇 달 전부터 다니고 있는 '홀몸노인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0세 넘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열혈 봉사로 청춘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혼자 지내는 노인들의 말벗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며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있었다.

성치 않은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한 어르신에게 어려운 건 없느냐고 묻자 "작은 관심과 배려로 혼자 지내시는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봉사활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화답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이웃 돕기 성금을 내고, 김장 나눔에 나서는 사람들의 온정이 우리 사회를 밝힌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나이를 떠나 남을 돕는 이들이 아직 많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따뜻하다.

| 김세은 뷰티에디터







AI 확산을 막아라

12월 14일 오전 경기 이천시 설성면 성호저수지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조기 종식을 위해 농약 살포 무인 헬기와 농약 광역살포기를 동원해 가축 방역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AI 확산 방지에 총력 위기단계 ‘심각’ 상황... 현장점검 강화



1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한 닭, 오리가 15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AI가 발생한 전남 나주시 공산면의 한 종오리농가 입구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12월 1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내 방역대책상황실에서 AI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상향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경규 식품산업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AI 발생이 지속되는 데다 살처분 마릿수 증가에 따른 불안감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했다. 야생철새의 도래가 늘어나고 겨울철 소독 여건도 악화되는 추세다. 특히 아직 AI가 발생하지 않은 영남지역을 현장 점검한 결과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일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AI 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 AI 확산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에서는 의심 신고 직전 닭과 계란

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의 빠른 종식을 위한 현장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등을 대상으로 ‘스탠드 스틸’을 발령했다. 전국적인 스탠드 스틸 발령은 지난 11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8만9000곳이다.

도살 처분 가금류 1500만 마리 넘어서

매일 ‘일일 점검회의’… 스탠드 스틸(이동 중지) 전국 재발령

이처럼 정부가 대응을 강화한 것은 AI 피해가 사상 최악이 예상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첫 확진 농가가 나온 후 살처분 가금류는 1500만 마리를 돌파(12월 15일 발표 기준)했다. 이는 가장 피해가 컸던 2014년보다 빠른 속도다. 당시는 6개월 넘게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돼 그때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AI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AI 확진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이 의심 신고 직전 닭과 달걀을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농식품부가 사실관계와 역학조사 등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추가적인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AI 의심을 인지하고도 자연 신고하거나 고의로 닭과 계란을 출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조치 및 살처분 보상금 삭감(20~60%)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신고 직전 이들 동안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로 닭 10만여 마리가 출하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1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농장에서 지난달 26일 AI 의심신고가 되기 이전인 24~25일에 경기 파주 및 전남 여수 소재 도계장 2개소로 출하된 닭(10만3000수)은 도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29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걀 200여만 개도 AI 신고 이전에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농장에서 26일 AI 신고 이전에 출하(11월 20~25일)된 계란 288만여 개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서 AI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30일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닭고기와 계란값도 고공 행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 한 판의 소비자 평균가격(한 판 30구 특란 중품 기준)은 지난해 5416원에서 지난달 5648원, 이달 초 5826원으로 올랐다. 대형마트 3사는 상승한 도매가격 인상을 반영해 지난 8일부터 계란 가격을 평균 5% 정도 올렸고,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AI로 피해를 본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카드는 피해농가 등에 대해 대금 청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13일 NH농협금융은 AI 피해 농가와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NH농협은행이 농업인에게 최고 1억 원, 중소기업에 최고 5억 원을 신규 대출해준다. 신규 대출

시에는 최대 1%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1년간 유예해준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 원,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 연장 시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지원될 예정이다.

NH농협·KB국민·신한, 피해 농가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철새도래지 여행 자제, 손 자주 씻고 입 행귀야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AI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충분히 익혀 먹으면(70℃에서 30분 이상 조리) 안전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행하는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H5N6형인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AI가 인체에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과 비슷하다.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잘 생기고,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으며 발열, 오한,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두통이나 의식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AI는 주로 AI에 감염된 조류의 사체나 분변, 이들로부터 오염된 물 등을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분변 또는 분비물을 먼지 형태로 흡입했을 때 감염된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입을 행구거나 양치를 통해 입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한다.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할 때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이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최소 5일 이상 닭, 오리 등 가금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야 한다. 발생지역 방문 후 38℃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에 신고한다. AI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한다. **G**

황교안 권한대행 안정적 국정관리 행보 “국정 공백 방지에 총력 안보·경제·민생안정 차질없이 수행”



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 황교안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가 국정 공백 방지 및 국내외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나서는 한편 행정복지센터, 구세군 모금 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12월 15일 열린 제2차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특단의 치안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여성, 서민생활, 동네, 교통안전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여성안심구역 등 취약지역 순찰을 대폭 강화해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한 “최근 S&P,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도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와 치안질서를 바탕으로 민생 현안들에 신속히 대응해나가면서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소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복지 허브를 확산하

고, 민간 복지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해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명동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12월 11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60만 장병 한두 사람이 실수하거나 방심해도 안보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이 지속됐고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도발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이러한 우리 국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국정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에도 나섰다. 12월 14일 국회 국회의장전실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경제 현안 등 국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국정 안정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한편 정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시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국민을 잘 섬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판단하면 작은 차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G**

황교안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이른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정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저는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바르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며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교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곧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등 국익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

제 비상대응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각종 위협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에 필요한 대책들을 촘촘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가 안보, 경제 회생, 민생 해결과 함께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직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환위기, 국제 금융위기, 각종 사회 갈등 등 여러 위기와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십시오.

국정 운영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정부 국정 정상화 주력

북핵·동맹관계·민생 안정적 관리 협업체계 가동해 국민 불안 해소



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외국상공회의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 12월 13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는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 데 이어 10일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당면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외교 현안 일관성 유지… 우방국과 협력 지속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가동

12월 10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미래 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신기자 및 외국인 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사회 분야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민생침해 범죄 근절,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장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이행 상황을 적극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기존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 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이 회의에서 경제, 사회, 외교·안보 및 국민 안전, 민생 치안 등 주요 현안대책들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결정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 부총리 주재 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서 최종 논의·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일자리·민생과 관련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 재정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노력해서 예산 이월·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조기 집행이 가능한 민생 안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내로 사업 공고를 하는 등 올해 말까지 집행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12월 9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대사를 연례적으로 초청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상황을 설

명하고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갈 것이며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 현안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동맹 현안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국내 정세와는 별개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도 확고할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도 북한·북핵 문제 등 제반 현안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13일 한·미·일 6자회담에 참석해 대북압박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긴급 간부회의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AI 방역조치와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쌀 매입 현황 및 재고 처리 상황 등도 점검했다.

한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2월 12일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급 기관별 비밀 등 중요 자료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밀을 포함한 국가 중요 자료에 대한 안전한 전자적 보안 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는 등 특별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자금 7조 원으로 늘리고 사잇돌 대출 1조 원 추가 공급

지역 안정대책과 겨울철 민생 안정대책 효과적 수행

금융위원회는 12월 14일 서민 중소기업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4대 정책 서민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7조 원으로 늘리고, 중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

조윤선 문체부 장관, 세계 언론에 서한...“국정 안정에 총력”

조윤선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1일 전 세계 언론인과 국내 상주 외신에 정부가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빈틈없이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탄핵안 가결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군 경계태세 강화’를 긴급 지시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외교부 장관이 주요국 주한대사를 초청해 외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하고 기획재정부도 관계기관 경제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서한은 주요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외신에 전달됐으며, 국내 상주하는 24개국 111개 외신, 280명의 언론인과 그동안 해외문화홍보원 초청으로 방한한 바 있는 언론인 399명에게도 발송됐다.

보증도 1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청년·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자금 신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은 연 18조 원 이상 자금을 창업·성장기업에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공급 규모를 3조 원 이상 늘려 66조 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안정을 위한 ‘지역 안정 특별대책’과 특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지역 안정 특별대책은 공직 기강 확립을 기본으로 지역의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생을 꼼꼼하게 챙겨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시국이나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법 집행 소홀 등 공직 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감찰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역 안정대책과 동절기 민생 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12월 10일부터 상호 협력을 위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홍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홍보대사 안재욱



적십자회비, 이렇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기후원 및 단체 기부금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423억 원

- 취약계층 결연 | 약 5만 6천 명
- 위기가정 긴급지원 | 약 3천 8백 명
- 지역사회복지활동 | 약 215만 명
- 공공의료 | 약 14만 8천 명



국내 재난 구호 활동
약 208억 원

- 이재민 재난구호 | 약 1만 5천 명
- 무료 구호급식 | 약 116만 명
- 저소득층 생계구호 | 약 41만 명



국제 구호 활동
약 83억 원

- 해외 재난구호 | 약 27만 명
- 개발협력활동 | 약 23만 명



생명보호 활동
약 56억 원

- 보건교육 | 약 6만 5천 명
- 안전교육 | 약 80만 명
- 재난구조 및 봉사활동 | 약 159만 명



적십자와 함께한 사람들
약 774만 명

- 봉사원 | 약 15만 명
- RCY | 약 24만 명
- 헌혈자 | 약 287만 명
- 적십자회원 | 약 420만 명
- 정기후원 | 약 28만 명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 m.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기획특집

살의 수품 겨울여행 취향대로 즐기라



숨 가쁘게 달려온 스스로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선물해도 좋을 한 해의 끝자락. 늘 그렇듯 뿌듯함보다 아쉬움이 큰 마지막 여정,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에 여행만 한 것이 또 있을까. 태양의 눈맞춤에 보석마냥 반짝이는 눈꽃과 초록 옷을 벗은 앙상한 몸 뒤로 자연의 풍광을 가득 담아내는 겨울나무, 여행자의 얼굴을 비추며 유리구슬처럼 얼어붙은 강물... 동공에 박히는 모든 겨울은 앞선 계절들과는 판판으로 차갑지만 포근하고, 쓸쓸하지만 아련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일 년 내내 지고 뜨기를 반복했을 태양의 몸짓 하나에도 설레는 계절. 한 해의 끝이자 새해의 시작에 떠나는 겨울여행은 어떤 여행보다 오래 가슴속에 담긴다. 올 한 해도 곳곳이 버터넌 우리 모두, 떠나자!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강화 동검도, 노을과 함께한 여행

장엄한 낙조·갯벌에 백리박은 갈대
그래서 따뜻하다, 외롭지 않다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렸어도 아쉬움이 남게 마련인 한 해의 끝자락이다. 이럴 때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해를 보며 눈물 한 방울과 함께 쓸쓸해지는 마음을 씻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다고 너무 무겁거나 진지해질 필요는 없다. 글·사진 장태동 | 여행작가



1 동검도 일몰여행에는 갯벌에 깊게 뿌리내린 갈대가 있어 외롭지 않다. 2 서서히 기울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긴다.

● 어떨 때는 여행도 순식간에 결정된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인천역 앞 차이나타운을 들르게 됐다. 거리에 활기가 넘친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사람들로 북적댄다. 화덕에서 구운 만두에 공갈빵, 전병...,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이 나올 때를 기다린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하얀짜장'을 파는 집으로 들어갔다.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중국 산둥반도에서 건너온 중국인 부두노동자들이 먹던 짜장면을 재현한 것이 하얀짜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중국식 된장에 고기를 볶아서 소스를 만들었다. 닭고기 삶은 물을 조금 넣고 다진 마늘도 곁들여 비빈다. 100여 년 전 인천항 부두노동자들이 먹던 그 맛은 아니겠지만 옛 맛을 기억하려 만들어낸 하얀짜장은 옛 생활사를 담은 살아 있는 기록이다.

월미도에도 사람들은 붐빈다. 월미전망대로 올라간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월미전망대 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 하얀 아저씨들이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가리키며 옛이야기를 나눈다. 당신들이 뛰어놀던 산등성이며 갯벌 이야기다. 일정은 더 이상 없었다. 정해놓은 여행지도 없다. 어디로 갈까? 고민의 시간은 짧았다. 강화도로 가기로 일행과 합의했다. 운전 을 하는 지인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정해진 것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여행. 차에서는 저음이 완벽한 관현악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고 해는 점점 기울어지며 질감이 풍부해진다.

어둠에 맞서 대지를 밝히는 태양

아스라해지는 풍경 속에서 눈물을 흘린다

강화도의 길은 향량하다. 녹진한 공기와 낡은 도로와 정리되지 않은 풍경들이다. 남쪽 해안길을 따라가다가 동검도로 접어들었다. 강화도 남쪽에 있는 동검도는 강화도와 도로로 연결된 섬이다. 강화도에서 동검도로 진입하는 길 오른쪽에는 갯벌과 바다, 섬이 펼쳐진다.

일몰 시간을 기다리며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한 해를 차분하게 되돌아본다.

사위가 어두워질수록 마음은 허허로워졌다. 보랏빛으로 변하는 공기의 색에 마음이 이끌린다. 지금부터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공기의 색이 변하는 것을 그 속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일행을 재촉했다. 왔던 길로 돌아나간다. 마을 골목길을 지나 갈대 피어난 바닷가 빈 터에 차를 세웠다.

해질 녘에 공기의 온도가 변하는 찰라가 있다. 차가워진 공기를

느낄 때 갈매기들은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공중으로 날아올라 노을 빛 속에서 비행을 한다. 갈매기들이 어디론가 내려앉은 뒤 노을은 또 한번 그 색을 바꾼다.

갯벌에 기우뚱 누운 배가 섬처럼 떠 있다. 바닷물은 저 멀리 물러나 있고 바다 멀리 산 뒤로 지는 해가 노랗고 붉은빛을 발산하며 풍경을 장식하는 어둠에 안간힘으로 맞서며 대지를 밝히고 있다.

해가 사라진 공중의 색은 세 번 변한다. 빛의 진폭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안간힘으로 마지막 빛을 내는 한순간을 보았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갈대가 화석처럼 박혔다. 갯벌에 내린 뿌리로 흙을 완강하게 움켜쥔 갈대가 오늘 하루 세상을 떠돌다 멈추어 선 내 앞에 있는 것이다. 떠다니는 마음 뿌리내릴 수 없는 시간들이 외롭지 않은 것은 이런 풍경이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하루가 쌓이는 곳은 어딜까? 형식이 강조된 다이어리에 남아 있는 날들은 화석이 되어버렸다.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던 순간들은 머릿속에 박제로 남아 있다. 길 위에서 시간은 꿈처럼 흐른다. 끝내 알지 못할 곳으로 지는 해가 거울 같았다.

시린 바람에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는 눈에서 눈물이 난다. 아스라해지는 풍경의 시간이 카메라에 담기는 순간이 따뜻하다. 6

땅끝마을·부안 솔섬 낙조... 정동진·호미곶 일출

해가 지고 뜨는 바닷가에서 다시 희망을 새긴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1

해넘이 명소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전국 해넘이 명소로는 강화도의 적석사, 을왕리 해수욕장,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변산반도 채석강 등이 유명하다. 이 가운데 특히 충남 태안군 안면읍 광지길에 위치한 꽃지해수욕장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5km에 이르는 백사장과 할매바위, 할매바위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보여주며, 두 개의 바위 너머로 붉게 물드는 낙조는 태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풍광 중 으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해질 무렵이면 할매바위, 할매바위 너머로 물드는 일몰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사계절 내내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의 041-670-2763

부안 솔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 위치한 솔섬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명소로 꼽힌다. 도청리의 솔섬은 붉은 노을과 바위섬의 실루엣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외로운 바위섬에 자라난 소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해가 걸리면, 그 모습이 마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또한 썰물 때가 되면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무인도와 육지가 연결되기도 해 솔섬의 낙조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든다. 문의 063-580-4221

순천만 전남 순천시 순천만은 갯벌과 갈대밭 사이로 비치는 일몰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순천만은 드넓은 갈대밭 군락과

갈대밭 앞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 수만 마리의 겨울 철새 등으로 장관을 이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광활한 갈대밭 위에 붉게 떨어지는 석양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숨 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이 밖에 순천만 일대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 조류 등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살아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각광받고 있다. 문의 061-749-5708

해남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해넘이·해맞이 축제로 빼놓을 수 없다. 매년 12월 31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땅끝마을의 땀샘 일원과 갈두산 사자봉 땅끝전망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해넘이 행사로는 전망대 봉수 점화, 해넘이 제례, 축하 공연과 초대 가수 공연, 풍등 날리기, 불꽃놀이 등이 있다. 또한 땅끝전망대에서도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어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문의 061-530-5223

당진 왜목마을 서해안 당진에서는 일몰과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충남 당진 왜목마을 일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해넘이·해돋이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왜목 해넘이·해돋이 축제는 31일 오후부터 해넘이 감상과 관광객 노래자랑, 가수 초청 공연 등의 해넘이 행사를 시작으로 자정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에 이어 소원 성취 달집태우기가 진행된다. 새해가 밝아오면 일출 감상, 떡국 나눔 행사 등으로 해돋이 행사는 마무리된다. 문의 041-350-3591



©울산시



©울산시



©부산광역시



©해남군

1 충남 당진 왜목마을에서는 일몰과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 뒤로 보이는 순천만의 노을. 3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울산의 간절곶. 4 해남이 해돋이 축제가 열리는 부산시 제야의 타종행사. 5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해돋이 기원행사.

해돋이 명소

강릉 정동진 전국에서 유명한 해돋이 명소로는 강릉 경포대와 정동진, 울릉 저동항, 동해 추암마을, 포항 호미곶, 울산 간절곶, 부산 다대포, 여수 향일암, 제주 성산일출봉 등이 있다.

이 중 동해의 드넓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만큼 감동적인 해돋이가 또 있을까. 특히 연인, 가족과 함께하는 정동진의 아름다운 해돋이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正)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정동진 기차역은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 최대 크기의 모래시계도 명물이다.

이곳 모래시계에서는 매년 1월 1일 정각 모래시계 회전식과 함께 해맞이 행사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불꽃놀이, 초청 가수 공연, 관광객과 주민 노래자랑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정동진 인근 경포대의 해돋이 역시 절경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문의 033-640-5807

포항 호미곶 경북 포항의 호미곶 역시 해돋이를 맛기에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호미곶은 한반도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다. 특히 호미곶의 상징물은 '상생의 손'이다. 상생의 손은 새천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뜻에서 만든 조형물이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떠오르는 해

를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먹거리 장터가 마련돼 출출할 때 허기를 달랠 수도 있다. 이 밖에 해맞이 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문의 054-270-2253

부산 해운대 부산의 용두산 공원과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는 12월 31일 송년음악제, 제야의 종 타종을 시작으로 1월 1일에는 신년사, 새해맞이 불꽃 연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용두산 공원 이순신 장군 광장에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부스를 운영해 따뜻한 음료와 소망풍선 등을 배부하며, 용두산 공원 특설무대에서는 7인조 빅밴드와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월 1일에는 부산호텔 옥상에서 새해맞이 불꽃 연출 쇼와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진다. 문의 051-888-1854

울산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하며 정동진, 호미곶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일출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하얀 등대와 그 아래 커다란 우체통이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간절곶 등대에는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으며, 등대에 대한 자료와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또한 '소망우체통'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으며 엽서도 쓸 수 있게 돼 있다. 인근에는 언덕길을 따라 다양한 커피와 음료수 등을 살 수 있는 로드 카페들이 있고, 반대편으로는 횃집들이 모여 있어 해산물을 맛볼 수도 있다. 문의 052-229-2050 6

경기 양평 구둔역 폐역

녹슨 철길에 첫사랑이 내려앉았다



시골 간이역에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옛 정취가 살아 있다. 철길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수십 년 전 간이역의 풍경은 지금도 여전하다. 올겨울 새 단장을 마친 경기 양평의 구둔역 폐역도 그중 하나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이상윤 기자

● 이용객이 적고 역장이 배치되지 않은 작은 역, 바로 간이역이다. 일반 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간이역은 인적은 드물지만 나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어 문학 작품 속 배경으로 등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00여 개의 간이역이 있고 그중 24개 간이역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구둔역 폐역(이하 구둔역)도 그중 하나다. 80년 가까이 소박한 간이역으로 자리해온 구둔역이 지난 12월 2일 새 단장을 마치고 농촌 문화를 품은 예술적 공간으로 거듭났다.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구둔역은 구불구불한 산길과 시골길을 한참 달린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곳에 간이역이 있을까 싶을 만큼 깊숙한 곳까지 차를 몰고 들어오면, '구둔'이라는 낯은 명패를 단 조그마한 역사가 외딴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구둔역은 첫사랑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간이역이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주인공 승민(이제훈)과 서연(수지)이 포퓰러한 20

대 초반의 우정과 사랑을 쌓아 올린 장소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흥행 이후 구둔역은 애절한 첫사랑의 배경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되었다. 그래서일까. 역사 옆에는 빨간 벽돌과 나무 한 그루가 어우러진 '고백의 정원'이 조성돼 있어 연인들의 고백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시간 대신 사랑, 희망, 행복, 기쁨 등의 단어가 쓰인 시계 앞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거나 기억해보는 것도 좋겠다.

역사와 광장, 철로, 승강로까지 등록문화재로 지정

영화 '건축학개론' 속 주인공들의 추억의 장소

1940년 4월 간이역으로 만들어진 구둔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질곡의 세월을 견뎌왔다. 서울 청량리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몇 차례씩 지나갔지만 지난 2012년 폐역이 된 뒤 사람들의 발길도 찾아들었다. 낡은 철로 옆에는 이제는 달리지 못하는 무궁화호 열차 한 대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옛



©서영진



2 3



©영화 '건축학개론' 스틸컷



4 5

1 구둔역은 추억의 장소가 되었지만 청량리 방면을 알리는 이정표는 그대로 남아 있다. 2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구둔역 전경. 3 시간 대신 사랑, 희망, 행복 등의 단어가 쓰여 있어 연인들의 고백 장소로 안성맞춤인 '고백의 정원'. 4 첫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두 주인공은 양평 구둔역을 찾아 추억을 쌓는다. 5 구둔역 철길 앞에 자리한 고목에는 방문객들의 소원을 적은 황금티켓이 걸려 있다.

간이역의 존재를 환기시키며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둔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여행자들을 반기는 건 역사 앞의 터줏대감인 개 '몽구'다. 몽구와 인사를 나누고 뼈적거리는 철문 안으로 들어서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합실을 만나게 된다. 열차시간표가 적힌 표지판을 떼지 않은 대합실은 마치 구둔역이 지금도 운행하는 간이역인 듯 착각하게 만든다.

철로 쪽으로 발길을 옮기자 '까뭉이네'에서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팸말이 눈에 들어온다. 대합실 일부를 카페로 개조한 까뭉이네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승차권과 함께 구둔역 고목에 걸 수 있는 '소원의 황금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카페 천장에는 수십 년 전 세운 낡은 목재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구둔역사를 되도록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접목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목조 양식의 구둔역은 역사와 광장, 철로, 승강장까지 등록문화재 296호로 지정됐다.

승강장으로 나가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커다란 고목이 우뚝 서 있다. 나뭇잎 대신 방문객들의 소원을 적은 황금티켓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어 마치 남산타워의 자물쇠를 방불케 한다. 청량리행을 알리는 이정표도 햇살을 머금고 철로 변을 지킨다. 멈춰 선 기관차와 객차 역시 철로 한편에서 겨울 역의 아련한 정취를 더한다.

구둔역이 있는 구둔마을은 예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때 한양으로 넘어서는 언덕길에 진지 아홉 개가 있어 구둔(九屯)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란 때마다 격전지였던 구둔역은 마을이 폐허가 된 6·25전쟁 당시에도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지켰다고 한다.

구둔역에서 벗어나 용문 방향으로 이동하면 용문사, 친환경농업 박물관 등이 자리한 용문산 관광지가 나타난다. 천년 고찰 용문사까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 코스가 인기가. 용문사 경내에는 국내 최대 수령과 높이를 자랑하는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호)가 눈길을 끈다. 한적한 숲 산책을 원한다면 쉬자파크도 추천할 만하다. 백운봉 자락에 위치한 쉬자파크는 휴식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관찰테크와 잔디광장, 초가원, 솔쉼터 등이 조성돼 있다. 근처의 중미산자연휴양림은 토성과 목석 등 행성을 테마로 한 숙소를 새롭게 개장했고, 휴양림 옆에 중미산 천문대가 들어서 밤하늘의 별자리도 관찰할 수 있다.

위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내비게이션에 '구둔역 폐역'으로 검색)

주변 볼거리 용문사, 들꽃수목원,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쉬자파크, 세미원, 양평보릿고개마을 등

문의 031-770-2099(양평군청 관광진흥과) 6



노스텔지어 간직한 간이역 Best 3

시간이 멈춰 선 그곳, 추억도 머물고 있더라

1

일제강점기의 아들이 서린 곳 군산 임피역

1924년 군산선 간이역으로 문을 연 임피역은 일제가 쌀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역이다. 과거 일본인들은 이 근방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항으로 운반해 일본으로 반출했다. 아픈 과거가 서려 있지만, 그래서 더 잊지 말아야 할 간이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임피역 대합실에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힘들게 수확한 쌀을 빼앗긴 농민들은 껌묵과 나무껍질로 허기진 배를 달랬고, 역사 옆 미곡 창고에서 노동자들이 배고픔을 참고 쌀가마니를 실어 날랐다.’

민중의 배고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임피역은 1936년 간이역에서 보통역으로 승격해 역사를 새로이 지었다. 이때 지은 건물이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서양 간이역과 일본 가옥 양식을 결합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208호로 지정됐다. 역사 서쪽에는 시계가 귀한 그 시절, 사이렌용 스피커로 정오를 알리던 오포대와 추억 속의 펌프도 있다.

2008년 5월부터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임피역은 최근 말끔한 모습으로 단장해 관광객을 맞고 있다. 군산 출신 소설가 채만식의 대표작 ‘탁류’, ‘레디메이드 인생’ 등을 기초로 한 조형물이 들어서고, 객차를 활용한 전시관도 생겼다. 승강장 쪽에 나무 벤치를 마련

해 고즈넉한 간이역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임피역이 위치한 전북 군산은 개항장으로 인천, 목포와 마찬가지로 근대사의 흔적이 많은 도시다. 특히 도심 해망로와 군산 내항 일대에 근대건축물이 즐비해 임피역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그 출발점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다.

이름처럼 군산의 근대 문화와 해양 문화를 주제로 한 박물관에는 해양물류역사관, 독립영웅관, 근대생활관, 어린이체험관 등이 들어섰다. 일제강점기 최고 변화가었던 영동상가, 지금의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미곡취인소 등을 생생하게 재현한 근대생활관이 가장 인기 있다.

서울역, 한국은행 본점과 함께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인 구 군산세관 본관(전북기념물 87호)도 볼만하다. 해망로를 중심으로 한 근대역사문화거리 반대쪽에는 ‘히로쓰 가옥’이라 불리는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 있다. 이 가옥은 영화 ‘장군의 아들’, ‘타짜’ 촬영지로 유명하며, 실내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위치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주변 볼거리 동국사, 군산 해망굴, 채만식문학관, 월명공원, 선유도

문의 063-454-3302(군산시청 관광진흥과)



©이정화

2



©홍승권

3



4



©최갑수

6



수집본
©최갑수

5

1 1936년 개축된 임피역사. 2 옛 모습을 재현한 임피역 대합실. 3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산역 급수탑. 4 연산역 철도문화체험관. 5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상징인 철암역두 선탄장. 6 1970, 19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철암역두 앞 거리.

100년 넘는 급수탑이 위용을 자랑하는 논산 연산역

대전과 충남 논산 사이에 있는 연산역은 한때 대전으로 통학하거나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간이역이다. 지금은 이용자가 드물지만(하루에 10회 정차), 과거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과 장사꾼들이 북적이던 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연산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급수탑(등록문화재 48호)이 있다. 다른 지역 급수탑은 보통 콘크리트로 만든 데 비해 연산역 급수탑은 화강석을 쌓고 철제 물탱크를 얹었다. 1911년 호남선 대전-강경 구간이 개통하면서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수탑을 세운 지 어언 100년이 지났다. 이 급수탑을 바라보면 증기기관차가 바빠 달리던 수십 년 전 연산역의 풍경이 떠오른다. 다양한 철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전에 미리 신청하면 급수탑 견학, 전호(깃발 신호) 체험, 기관차 체험, 선로 전환기 체험, 통일호 방송 체험, 승차권 발권 등 다양한 철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위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

주변 볼거리 백제군사박물관, 개태사, 쌍계사, 탑정호, 죽림서원, 강경 갑문, 황산근린공원, 강경포구 등

문의 041-735-0804(연산역)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현장 그대로 태백 철암역

철암역은 탄광산업의 중심지였던 철암의 빛나는 과거를 간직한 간이역이다. 철암은 강원 태백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광마을로 손꼽힌다. 한때 인구가 5만 명에 이르렀을 만큼 석탄으로 번성했던 철암에는 1940년 철도가 개통됐다. 그때 생긴 철암역은 무연탄 수송이 주 업무였지만, 이후 탄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지금은 무연탄과 경석을 주로 수송하고 있다.

철암역은 역사보다 그 옆에 자리한 선탄장이 더 유명하다. 철암역두 선탄장은 70년이 넘는 역사가 녹아든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상징이다. 국내 최초 무연탄 선탄시설이자 우리나라 근대산업사의 상징적인 시설로 평가받아 등록문화재 21호로 지정됐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배우 안성기와 박중훈이 비를 맞으며 주먹다짐을 벌인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선탄장 너머에는 1970, 1980년대를 연상시키는 건물과 상점, 간판 등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철암탄광역사촌으로 재단장해 박물관 겸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치 강원 태백시 동태백로

주변 볼거리 추전역,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등

문의 033-550-2081(태백시 관광문화과) 6



1

용평·강릉 경기장 체험... 안목 커피거리... 정선 고드름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미리 즐겨요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백두대간의 정기와 동해의 푸른빛을 품은 강원도. 그곳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을 1년 2개월 앞두고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콤팩트'한 경기장을 표방하며 평창올림픽 플러자를 중심으로 모든 경기장이 30분 이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웅장한 경기장을 둘러보며 강원도의 대자연을 만끽하는 '올림픽 여행'을 해도 좋을 이유다.

백두대간 내려다보며 눈꽃 터널 트레킹 평창

평창은 국내 최초의 스키 슬로프가 들어선 곳으로 기온이 낮고 강설량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모든 설상 경기가 치러진다. 총길이가 2018m에 이르는 국내 최초의 슬라이딩 경기장인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를 비롯해 스키점프·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센터가 들어서는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와 보광 스노 경기장, 용평 알파인 경기장 모두 12월 11일 현재 95% 이상 건설이 완료됐다.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에서는 모노레일을 이용해 97.7m 높이의 스키점프대에

올라 스타트라인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주변의 대자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로 이용할 수 있다. 스키역사관도 조성돼 있어 체험교육장으로 손색없다.

경기장을 구경한 뒤에는 모든 구간이 차로 3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는 '대관령 목장 투어'에 나서보자. 여의도의 7.5배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목장인 삼양목장에서는 해발 1140m에 올라 동해 일출과 백두대간을 감상하고 양떼목장에서는 양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새로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하늘목장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겨울 트레킹 코스는 특별한 겨울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 등산로가 완만한 데다 눈이 많기로 소문난 대관령 인근의 화려한 눈꽃터널이 펼쳐져 오감으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이, 연인과 함께라면 대관령 눈꽃축제(2017년 2월 3~12일)로 떠나보자. 대형 눈 조각들을 감상하고 있다면 동화 속 얼음나라에 온 듯하고 얼음썰매와 스노 ATV(사륜 오토바이) 등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다.



©인합

1 평창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에서는 약 100m 높이의 스키점프 스타트라인 체험을 할 수 있다. 2 강릉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오죽 한옥마을'이 조성됐다. 3 대관령 목장에서 시작되는 선자령 눈꽃터널 트레킹. 4 집와이어 등 이색 레포츠도 정선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 5 정선 고드름축제에서는 얼음을 이용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정선군



©동아DB



©정선군

정동진서 새해 맞고 한옥마을서 여유 한 가락 강릉

빙상 경기가 펼쳐지는 강릉에는 컬링·하키(강릉, 관동) 센터와 아이스 아레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이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개 경기장은 경포대에서 인접한 지역에 밀집해 있어 관람객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한 번에 사로잡는다.

경포호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이 마련돼 있어 올림픽 유치부터 경기장 건립 현황 등 현재 올림픽이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볼 수 있다. 경기 종목을 모형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 이해하기 쉽고 4D체험관에서는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경포호에서 차로 15분 정도만 달리면 안목해변이다. 500m가 되지 않는 해안도로에 20여 개 카페가 해변가에 줄지어 늘어선 커피거리는 최근 젊은 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전국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첫날 축제가 펼쳐진다. 모래시계 공원에서는 지름 8.06m, 너비 3.20m의 세계 최대 모래시계가 8톤의 모래를 담고 시간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모래시계 회전식을 선보인다.

경포호에서 지척인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친정이자 율곡 이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강릉의 대표 유적이다. 정내에 율곡기념관 등이 있어 율곡의 저서 <격몽요결>과 율곡이 유년기에 사용했던 벼루(용연) 등을 볼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인근에는 19동 32실 규모의 '오죽 한옥마을'이 12월 준공돼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다.

레일바이크·집와이어 타고 아라리호~ 정선

정선 북평면 가리왕산에는 내년까지 알파인 스키 경기장이 들어선다. 경기장 주변에는 정선 생태체험지구가 마련돼 본격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선 여행의 시작점인 여량면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진다 해서 붙은 이름으로, 한강의 최상류 지점이자 '정선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다. 골지천 양 끝으로 한쪽에는 둘다리, 다른 한쪽에는 커다란 초승달이 내려앉은 듯한 교량이 있어 애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우라지는 강원도의 대표 레저스포츠인 레일바이크의 종착지이기도 하다. 폐광으로 기차 운행이 중지된 정선선 위를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한 시간 코스도 힘들지 않다.

아우라지에서 차로 20분이면 닿는 아라리촌은 전통 와가, 굴피집, 너와집 등 정선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아리랑 가락이 흐르는 가운데 골목을 누비며 도자기공예, 공방공예, 양반 체험을 하다 보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다.

지난해부터 열린 정선 고드름축제도 여행객을 부른다(2017년 1월 20~2월 4일). 고드름으로 장식된 축제장에서는 얼음축구, 얼음줄다리기, 얼음낚시, 맨손 송어잡기 등 색다른 겨울 체험을 즐길 수 있고 감자, 고구마, 찰옥수수 등을 구워 먹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아리힐스(병방치 스카이워크) 583m의 절벽 끝에서 한반도의 밤섬을 조망하거나 공중에 매달려 하늘을 나는 집(Zip)와이어의 짜릿한 경험을 맛보고 싶다면 정선으로 떠나자. [6]



전국 스키장·아이스링크장 잇따라 개장

“때가 왔다, **스노렘** 안고 신나게 달리기볼까~”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날씨가 추워지면 본격적인 겨울 축제의 시작이다. 전국 스키장과 아이스링크장이 일제히 개장했다. 이때만을 기다려온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의 설레는 마음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새하얀 설원과 유리구슬 같은 빙판... 묵은 마음 털어내고 겨울을 맘껏 달려보자.

올림픽 체험 휘닉스 스노우파크, 알펜시아·용평리조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의 세 스키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테스트이벤트 대회 15개가 열린다. 대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슬로프가 열려 일반인도 올림픽 코스를 즐길 수 있다. 휘닉스 스노우파크에서 12월 말 열리는 슬로프는 중간중간 점프대가 있어 엄청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국가대표 출신의 권기덕·주현식 씨에게 강습을 받을 수 있다. 10개의 테스트이벤트가 열리는 알펜시아리조트에는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국내 유일의 올림픽 경기장이 많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입장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고, 스키점프는 약 98m 점프대에서 스타트라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내년 초 완공되는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리는 봅슬레이 대회 기간에는 DJ KOO와 맥시마이트, B-보이 공연이 펼쳐진다. 용평리조트의 올림픽 슬로프 ‘레인보우 1’은 1458m의 발왕산 정상에 있어 절벽 위에서 있는 듯 아찔하다. 눈꽃 명소로 유명한 산 정상엔 하늘정원도 조성돼 있다.

주소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휘닉스평창(033-330-3000)

당일치기 야간스키의 메카 곤지암리조트 스키장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스키장이 있는 곤지암리조트는 직장인들의 당일 스키 메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판교~여주 간 전철 개통과 성남~초월 간 고속화도로 개통 등으로 판교에서 20분, 강남에서 40분, 안양에서 50분이면 갈 수 있다.

총연장 1.8km, 최대 폭 154m의 광폭 슬로프를 자랑한다. 국내 최대 조도를 자랑하는 플라스마 조명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새벽 4시까지 야간 스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주간보다 최대 35% 저렴한 심야시간 시간제 리프트권인 ‘심야 미타임패스’와 ‘슬로프원제’, 스키강사가 슬로프를 순회하며 무료로 원포인트 강습을 해주는 ‘슬로프V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소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278(02-1661-8787)

국내 최장·최고 경사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은 국내 최장(6.1km) 실크로드 슬로프와 최고 경사도(73%)의 레이더스 슬로프를 갖췄다. 실크로드 슬로프는 해발 1520m의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시작되므로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즐거움과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확 트인 경관과 함께 고사목에 핀 눈꽃과 설경을 감상하면서 내려오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재미. 레이더스 슬로프는 최상단에 오르면 직벽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리조트에서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오를 것을 권하고 있을 정도다. 중급자를 위한 루키힐



❶ 올해 2월 휘닉스 스노우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크로스 월드컵 대회. ❷ 직장인의 당일 스키 메카 곤지암리조트는 서울에서 1시간 내로 갈 수 있다. ❸ 예술의전당은 공연, 전시와 결합한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열었다.

슬로프 오픈을 시작으로 20개의 슬로프는 12월 말까지 점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 곤돌라를 타고 해발 1520m 설천봉에 오르면 눈꽃 산행지로 손꼽히는 덕유산 정상 향적봉을 20분 만에 쉽게 오를 수 있으니 잠시 스키를 벗고 트레킹을 하는 것도 좋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무주리조트(063-322-9000)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질주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 여덟 번째 규모의 국제 규격(400m 트랙)을 갖춘 매머드급 실내 아이스링크다. 태릉선수촌 내에 자리한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굵직한 국제경기와 국내경기가 열리는 곳이지만 연중 일반에도 개방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0월까지 4개월간 링크 바닥과 냉동설비 정비공사, 휴게공간 환경 개선공사 등을 실시해 국가대표 선수 훈련시설의 우수한 빙질, 쾌적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선수들의 훈련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대회나 국가대표 선수 훈련 때는 일반인은 보조링크를 이용해야 한다. 12월 28일까지 1월 겨울 강습 신청을 받는다.

주소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02-970-0501)

공연장에서 즐기는 빙속 예술의전당 야외 링크

예술의전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년 2월 12일까지 야외 음악광장에 아이스링크 '아이스드림'을 개장했다. 약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아이스링크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총 아홉 차례 운영된다. 올해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막한 '그래피티 뮤지엄 쇼 - 위대한 낙서' 특별전에 맞춰 그래피티(스프레이 페인팅)로 건축물 벽면에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힙합문화)를 테마로 한 독특한 아이스링크를 만들었다. 조명과 음향기기가 마치 공연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연말·새해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아이스

링크 주변에 떡볶이와 어묵, 피자,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푸드트럭도 마련했다.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02-580-1300) 6

강릉 아이스 아레나 공식 개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가 12월 14일 정식 개관했다. 2014년 6월 착공에 들어간 경기장은 전체 면적 3만2399㎡ 규모로 30×60m 크기의 아이스링크 2개와 관중석 1만 2000석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빙질과 경기장 온도 등을 관리하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됐다. 아이스링크별로 피겨는 영하 4℃, 쇼트트랙은 영하 7℃가 유지되는 자동 제빙 시스템이 적용됐다. 빙상경기장 최초로 관람석 온도를 15℃, 습도 40%를 유지해 추운 경기장 안에서도 관람객이 쾌적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야간에는 외부 경관조명을 통해 다양한 색이 덧입혀져 경기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확장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첫 테스트 이벤트인 '16~17 강릉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이 열려 31개국 308명의 선수단이 새 빙판 위를 달렸다. 최민정 선수는 "국내 빙상장이 추운 편인데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따뜻하다"고 했고 심석희 선수는 "여기 와보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실감이 난다. 얼음 컨디션 등 빙질이 생각보다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1

뜨끈한 노천 스파... 짜릿한 워터슬라이드... 파도풀...

“눈이 펄펄 오는데 첨벙첨벙 물놀이가 어때요?”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워터파크는 여름보다 겨울이 제맛이다. 실내에서 짜릿한 워터슬라이드를 즐긴 뒤 눈 쌓인 노천스파에서 느긋하게 보내는 오후는 생각만해도 흐뭇하다.

눈 내리는 겨울의 유수풀 체험 동인 캐리비안 베이

경기 용인시에 자리한 캐리비안 베이는 유수풀,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워터파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설들을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따뜻한 풀장에서 이색적인 겨울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외를 유유히 흐르는 550m 길이의 따뜻한 유수풀을 성수기인 여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물속에서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떠다니며 눈 내리는 풍경을 구경할 수도 있다. 또한 야외 유수풀 주변에는 36~41℃의 ‘뜨끈한’ 수온을 유지하는 바데풀, 버블탕 등 5개의 스파가 마련돼 낭만적인 노천 스파 분위기 도 연출할 수 있다. 실내 파도풀에서는 최고 1.2m 높이의 파도를 남

녀노소가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켄라이드에서는 실내외를 넘나드는 4가지 슬라이딩 코스를 통해 맨몸이나 튜브에 탑승한 채 짜릿한 스릴도 맛볼 수 있다. 문의 031-320-5000

요즘 대세 워터파크 하남 아쿠아필드

아쿠아필드는 지난 9월 9일 문을 연 쇼핑몰 하남 스타필드 안에 있는 워터파크로 개장 이후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쿠아필드 워터파크의 최고 뷰포인트는 야외에 있는 ‘인피니티 풀’로 아름다운 강과 산을 비롯해 확 트인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수영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속 순환하는 물에 몸을 맡기고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유수풀(실내), 온 가족이 즐기는 국내 워터파크 최초의 소용돌이치는 보텍스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존 등이 마련돼 있다. 문의 031-8072-8800

가족 단위 물놀이 시설 인기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웅진플레이도시에는 어린이 가족 단위를 위한 물놀이 시설이 잘 갖



©롯데워터파크

1 따뜻한 물 위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캐리비안 베이의 유수풀. 2 남태평양 해변을 테마로 구성된 롯데워터파크의 파도풀. 3 한겨울에도 눈을 보면서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웅진플레이도시. 4 6000여 평 실외 워터파크에 급류 유수풀 놀이가 가능한 테딘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



©테딘워터파크

취져 있다. '스플래시 키즈존'은 바닷속 세상을 테마로 한 물놀이 공간으로 다양한 바다생물을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표현해 어린이들의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또한 '투니 플레이존'과 '투니 캐릭터존'은 대형 해적선에서 뿔어져 나오는 물대포와 다양한 높낮이의 파도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며, 어린이 전용 슬라이드와 물놀이 기구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돌핀 키즈존'도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코스다.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는 성인들을 위해 대형 슬라이드와 어트랙션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며, 총 7종의 슬라이드도 이용할 수 있다. 노천 스파존에는 제설기를 설치해 한겨울에 눈을 보면서 따뜻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문의 1577-5773

국내 최초의 캐릭터 워터파크로 인기 천안 테딘 워터파크

중부권 최대 규모의 도심형 휴양 리조트다. 로마, 스페인, 베니스 등 유럽 7개국의 유명 건축물과 유적지를 콘셉트로 한 캐릭터 워터파크를 표방한다. 또한 사계절 전천후 초대형 온천수 워터파크와 탄산 온천수를 이용한 스파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총 6000여 평의 실외 워터파크에는 파도풀, 급류 유수풀, 비치풀, 슬라이드 6개, 아쿠아바 등이 있으며, 총 4000여 평의 실내 워터파크에는 바데풀, 유수풀, 남녀 스파, 아쿠아 플레이, 슬라이드 3개 등이 마련돼 있다. 이 밖에 스파존에는 면역력을 향상해주는 '황금탕'과 '체리탕',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레몬탕'과 '히노끼탕' 등이 준비돼 있다. 문의 041-906-7000

대한민국 1호 보양온천으로 유명 속초 설악 워터피아

설악 워터피아는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 테마파크다. 특히 워터피아에 사용되는 물은 모두 온천수(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 온천)로 약 1억8000만 년 전 형성된 화강암층에서 용출되는 물이며, 국내 최초로 지정된 '대한민국 1호 보양온천'으로도 유명하다. 총 2만4000평 규모에 약 11종의 물놀이 시설과 아쿠아폴, 야외 스파 등의 온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샤크 블루'에서는 전후좌우로 돌아치는 파도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고, '메일스트롬'에서는 17m 높이의 슬라이드에서 추락하듯 급하강해 깔때기 모양의 원통을 지그재그 회전한다. 문의 033-630-5800

남태평양 테마의 최대 규모 김해 롯데워터파크

시원하게 펼쳐진 남태평양 해변을 테마로 만들어졌으며, 실외 파도풀과 실내 파도풀, 토네이도 슬라이드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갖추고 있다. 실내 워터파크에는 사계절 오직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인 '유아풀', 실내 파도풀인 '터키웨이브', 5개의 바디 슬라이드와 시원한 물바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티키 아쿠아 플렉스', 스릴 있는 스윙감을 맛볼 수 있는 '3인용 스윙 슬라이드', 따로 또는 같이 긴 파이프를 따라 튜브를 타고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1·2인용 슬라이드' 등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튜브를 타고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만끽하는 유수풀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 같이 여유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따뜻한 물놀이 공간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문의 1661-2000 G

내가 가본 특별했던 겨울여행

“열심히 살아온 한 해, 나에게 주는 선물”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국내 겨울여행의 명소로 어디를 추천할까. 지금까지 가본 겨울여행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이며, 겨울여행의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는 누구와 어디로 겨울여행을 떠나고 싶은지 10인에게 물었다. 위클리 공감 편집팀



저희 가족은 매년 겨울 꼭 강원도 평창의 용평리조트에 갑니다.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겨울을 즐길 수 있으니깐요. 평소에는 혼자 여행하는 일이 많은 직업 (포토그래퍼)이라, 진짜 여행은 가족과 가고 싶어요. 가족들과 통영의 남

해 바다에서 요트를 타며 항해도 해보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가족 여행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 혼자 여행을 간다면 여유롭게 기차를 타고 속초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겨울 바다를 보면서 혼자만의 휴식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무**(49, 포토그래퍼)



지난해 12월 31일 가족과 함께 울산의 간절곶에 해돋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소망을 빌었죠. 겨울여행의 묘미는 알싸하게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아닐까요.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살아온 우리 가족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슴이 후련해지는 겨울 바다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고,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전남 영암 쪽에서 식도락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41, 직장인)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으로 갔던 경주에 얼마 전 혼자 갔어요. 학창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고, 눈 쌓인 경주의 고요한 풍경이 감동적이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추운 겨울여행이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고, 오히려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돌아다니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만약 혼자 여행을 떠난다면, 나만의 사색에 잠겨볼 수 있는 속초의 겨울 바다를 가보고 싶네요. **황혜미**(27, 직장인)



제주도 한라산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새하얀 설원에서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눈밭을 뒹굴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놀았던 추억이 있거든요. 겨울여행의 매력은 어딜 가든 하얀 풍경이 참 아름답다는 것이죠. 또한 추위 때문에 따뜻한 음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고, 스키나 보드 같은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은 마음 맞는 친구와 떠나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혼자 여행을 간다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온천에 가보고 싶어요. **이주희**(31, 대학강사)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이예요. 스키나 보드를 타본 적 없는 제가 눈발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건 눈썰매뿐이지 않아요. 눈 덮인 설원에 가보면 세상이 마치 하얀 도화지 같고, 잠시 멈춰 있는 느낌도 들어요. 겨울여행을 부모님과 떠난다면 온천 여행을 가고 싶고, 친구와 간다면 스포츠를 즐기는 곳, 연인과 간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네요. 이참에 울겨울은 부산이나 해남의 땅끝마을로 여행을 가볼까요! **최지혜**(30, 연구원)



대학 친구들과 졸업여행으로 담양에 여행을 갔는데, 푸른 대나무 숲과 메타세쿼이아 길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울겨울엔 원 없이 하얗게 쌓인 눈 구경도 하고 싶고, 특히 혼자 여행을 떠나 조용히 눈발 위에 제 발자국을 남기면 이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촬영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떠난다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온천 등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울겨울에는 강원도 영월, 태백의 눈 쌓인 멋진 산이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겠네요. **정고은**(29, 영양사)

부산 해동용궁사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고 해서 가봤는데, 전경도 멋진 곳이라 가슴이 뵙 뚫리더라고요. 그곳의 큰 빨강 우체통에서는 기념사진을 찍는 게 포인트랍니다. 겨울에 떠나는 여행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나에게 주는 선물 같아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앞으로 더 파이팅 넘치게 살아보자고 새해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떠난다면 게스트하우스 등 시설이 잘돼 있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일단 울겨울에는 강릉으로 떠나는 게 목표랍니다. **왕윤정**(29, 국악인)



강릉에 간 적이 있어요. 마침 눈이 내렸는데, 겨울왕국에 들어선 기분이었죠. 눈 구경도 실컷 하고, 따뜻했던 초당두부, 바다를 보며 마셨던 드림커피까지 완벽했던 하루였어요. 여름의 바다도 좋지만, 한적하고 고요해 쓸쓸함마저 감도는 겨울 바다도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여행은 혼자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사실 혼자 가는 게 가장 좋지만 가게 된다면 아직 없는 남자친구와 떠나고 싶어요! 울겨울에 여행을 떠난다면 폭설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천 여행이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은선**(32세, 회사원)



올 초에 겨울 지리산을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올고 싶었지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쾌감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겨울 산행은 함께 간 동료들과 유대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줘 정말 좋았어요. 최근에 생긴 남자친구와 순천만의 갈대숲에 가보는 게 올해 계획입니다. 사랑이 갈대숲에서 오롯이 자연과 함께 있는 황홀함을 느껴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전라도의 맛있는 꼬막정식까지 맛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겨울여행은 없겠죠? **홍승희**(28, 직장인)



겨울에 떠난 담양의 죽녹원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초록의 대나무에 하얀 눈의 조화는 온갖 상념을 잊게 해주는 광경이었거든요. 겨울이 주는 차분함이 지난 1년간 보낸 날들을 정리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올해 겨울여행을 갈 수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난다면 서울 시티투어를 하며 고궁이나 서울의 명소들을 한번 둘러보고 싶고, 가족과 떠나는 여행이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을 가보고 싶어요. **백승현**(27, 직장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름·겨울철 ‘요금 폭탄’ 걱정 끝!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돼 올여름과 같은 ‘전기요금 폭탄’은 줄어들게 됐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올여름 무더위로 ‘요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대폭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13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확정된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6단계 구간을 필수 사용 구간인 1단계(0~200kWh), 평균 사용 구간인 2단계(201~400kWh), 다소비 구간인 3단계(401kWh 이상)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할인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3단계 3배수로 완화... 동·하계 15% 할인 효과 슈퍼유저에 페널티, 절전 가구엔 추가 할인 혜택

이번 개편으로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정부는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 원에 달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 전력량이 600~800kWh로 늘어나도 ‘요금 폭탄’ 걱정은 덜하게 됐다. 산업부는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현행 21만7350원에서 13만6040원으로, 800kWh 사용 시에는 37만8690만원에서 19만985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과도한 전력 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1000kWh 이상 쓰는 ‘슈퍼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를 부과한다. 또한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과 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는 등 전기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도 해소된다. 정부는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구마다 전력 사용량이 다른데도 계량기가 하나뿐이어서 n분의 1로 부담해야 했던 다가구주택은 희망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을 내는 편법을 쓰지 못하게 분기별 1회 단속을 시행한다.

전기요금 지원방안도 확대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할인율을 30%(1만

6000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출산일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가구, 저소득 가구 월 1만6000원 한도 30% 할인

학교 전기요금 20% 할인... 유치원도 적용

여름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동 교실 논란을 풀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변경했다. 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전국 1만2000여 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 요금을 더해 결정됐다. 그런데 현행 기본요금이 연중 최대 피크치를 근거로 정해지다 보니 냉난방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기본요금이 치솟게 된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43%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폭염이나 한파에도 냉난방 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한다. 또한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현행 4043만원에서 3241만원으로 800만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산업부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여름·겨울 전력 수요가 30만~60만kWh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석탄 발전 출력 조정, 수요자원 거래 시장 및 시운전 전력량 활용 등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요금제 개편과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출산 가구와 저소득층 요금 경감대책 등으로 발생하는 연 1조2000억 원 이상의 요금 감소는 전액 한국전력에서 감당하기로 했다. **㉠**

개편 전후 주택용 전기요금표

구간	기본요금 (원/가구)	전력량요금 (원/kWh)
1 100kWh 이하	410	60.7
2 101~200kWh	910	125.9
3 201~300kWh	1600	187.9
4 301~400kWh	3850	280.6
5 401~500kWh	7300	417.7
6 500kWh 초과	1만2940	709.5



구간	기본요금 (원/가구)	전력량요금 (원/kWh)
1 200kWh 이하	910	93.3
2 201~400kWh	1600	187.9
3 400kWh 초과	7300	280.6

사용량별 주택용 전기요금 변화

사용량(kWh)	현행	개편 후
100	7350원	7090원
200	2만2240원	1만7690원
300	4만4390원	4만4390원
400	7만8850원	6만5760원
500	13만260원	10만4140원
600	21만7350원	13만6040원
700	29만8020원	16만7950원
800	37만8690원	19만9850원
900	45만9360원	23만1760원
1000	54만30원	26만3670원
1500	94만3380원	66만7010원
1700	110만4720원	82만8350원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5%) 포함

*동·하계 수퍼유저 적용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6년간 475억 원 투자해 탄소자원화 기술 실증

2030년까지 온실가스 年 2500만 톤 감축 16조3000억 원 경제적 가치 창출



정부는 12월 12일 탄소자원화 실증 로드맵을 발표하고 향후 6년간 47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양제철소 5고로.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는 향후 6년간 총 475억 원을 투자해 탄소자원화 기술의 실증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12월 12일 정부는 탄소자원화 기술의 조기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정병선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탄소자원화 기술은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서 진일보해 온실가스 자체를 자원화함으로써 화학제품을 만드는 혁신적인 역할상 기술로,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조기 실증

에 착수해 민간에 확산하고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자원화’ 기술은 산업단지나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온실가스로부터 탄소원(일산화탄소,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자원화해 메탄올이나 경유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지난 8월 10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온실가스를 자원화해 화학제품 만드는 기술

신(新)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현실화

이번 로드맵은 지난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탄소자원화 기술의 상세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의 실증 참여와 원천기술의 민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2017년 초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발족하고, 향후 6년간(2017~2022년) 국비 340억 원 등 총 475억 원을 투자해 탄소자원화 기술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 로드맵’은 탄소자원화의 두 가지 기술군(탄소 전환·광물)별로 기술 수준과 시장 환경을 분석해 우선 실증이 가능한 핵심 요소 기술을 도출해 패키지화하고, 실증 규모별 추진 내용과 성능 기준 및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 일정을 제시한다. 아울러 ‘탄소자원화 전략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수집된 온실가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실증 성과를 확산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탄소를 전환하는 플레그십(최상위) 실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산업 부생가스의 탄소(일산화탄소, 메탄)를 분리·활용해 유용한 화학원료와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광양·여수 산업단지와 연계해 국비 178억 원 등 총 273억 원을 실증에 투자하게 된다. 산업 부생가스의 일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분리·정제하고, 화학 촉매 전환을 통해 화학원료·연료(메탄올, 올레핀, 경유 등)를 생산하는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해 상용화가 가능한 규모의 설계집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부생가스를 활용하기 쉬운 광양·여수 산업단지와 연계해 관련

지자체, 기업과 협력하고 실증 플랜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괄적인 지원을 하고, 전남도와 광양·여수시 등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참여기업들은 가스 공급 등 실증사업에 협력하게 된다.

부생가스의 탄소 분리·활용해 화학원료와 연료 생산 폐광산 복구에 필요한 채움재 생산하는 기술도 추진

탄소 광물에 대한 플래그십 실증도 추진된다. 이는 발전소에서 배출된 저농도 이산화탄소를 직접 활용해 폐광산 복구에 필요한 채움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강원·충청 지역의 현장과 연계해 국비 162억 원 등 총 202억 원을 투입해 실증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저농도 이산화탄소와 발전회 등을 복합 탄산염으로 광물화해 폐광산 채움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함으로써 상용화가 가능한 규모의 설계집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와 시멘트업체, 광산업체가 많은 강원·충청 지역의 각 실증 부지를 연계해 패키지 기술의 실증 플랜트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사업단 구성과 운영, 사업계획 수립 등을 총괄 지원하고, 강원도와 충청도 등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참여기업은 저농도 이산화탄소 및 폐광산 시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실증사업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자원화 전략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탄소자원화와 관련해 연구 역량이 집중된 기관을 선정하고,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6년간 매년 7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탄소자원화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등 전담 지원기관을 운영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정책, 기술, 시장의 동향과 연구 성과 등에 대한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고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자원화를 추진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집된 실증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도출하고, 온

탄소자원화 실증 로드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가치 창출

	2025년		2030년	
	감축량	750만 톤/년	2500만 톤/년	
온실가스 감축	탄소 전환	450만 톤/년	1500만 톤/년	
	탄소 광물	300만 톤/년	1000만 톤/년	
경제적 가치 창출	총액	4조9000억 원	16조3000억 원	
	탄소 전환	3조7000억 원	12조3000억 원	
	탄소 광물	1조2000억 원	4조 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기술에 대한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6년간의 실증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플랜트 설계집, 운전 제어기준 등 핵심 성과를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 산정 기술을 배출권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확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증을 통해 검증된 플랜트 기술의 해외 수출과 현지 적정 기술화를 통해 CDM(청정개발체제 :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체제) 모델을 개발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2월 12일 강원도, 충청도와 남부발전·한일시멘트 등 35개 기업과 탄소 광물 플래그십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관계된 지자체와 기업들 역시 탄소자원화 실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 3일 미래부는 전남도, 광양시, 여수시 등 4개 지자체와 포스코, LG화학 등 20여 개 기업과 탄소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탄소자원화 신(新)기후산업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연간 2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6조300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추진

번식장 허가제로…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월 14일 밝혔다. 관련 산업의 영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시장 규모를 3조5000억 원까지 키워 일자리 4만1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 조사, 생산업체·경매장 실태조사와 생산자·동물보호단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미신고 영업장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영업장의 관리인 한 사람당 사육 마릿수와 농가당 사육 마릿수도 각각 80마리, 모견 100마리로 기준을 강화했다. 앞

으로 영업장은 반드시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장을 설치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도 필수다.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병원 설립이 가능해져 의료, 미용, 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미용, 위탁관리, 운송업 등 서비스업종 신설 및 관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가격 경쟁력과 제품력을 가진 반려동물 용품 및 사료 유망 중소기업에는 기술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동물장묘산업과 관련해선 불법 사체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동물 장묘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법 정비에 나선다.

반려동물 소유주 의무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4곳 신설

시장 규모 3조5000억 키워 일자리 4만1000개 창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건당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내년에는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4곳(일반 3개소, 광역 1개소)이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을 지원해 동물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인수해 보호하고 관리하는 동물 인수제도와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는 놀이 시설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농식품부 안에 동물복지팀과 전담 법률팀을 마련하는 등 세부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사회취약계층 39만5000명 가스·통신요금 등 감면 신청하세요!

박설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요금 감면 혜택 수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4종의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 27일까지 요금 감면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15만6000가구, TV 수신료 4만2000가구, 전기요금 7만6000가구, 이동통신요금 14만7000명 등 총 42만1000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올해 신규 복지 대상자, 기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39만5000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센터 요금 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내년 6월 시행

비수혜 취약계층 발굴 연 2회 확대 실시 예정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 12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주민센터의 요금 감면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괄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한국전력, 도시가스공급회사, 이동통신사, KBS 등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이 밖에도 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대행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15만~20만 명가량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내년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요금 감면 내용은 요금 고지서에 내역이 함께 청구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별로 감면받을 수 있는 요금은 서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감면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기본료 면제 (1만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 원 한도) ※ 월 최대 2만2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겨울철(12~3월) 2만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 없음	• 월 최대 4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 원 한도) ※ 월 최대 1만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겨울철(12~3월) 1만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겨울철(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해당 없음	• 월 최대 2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 원 한도) ※ 월 최대 1만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한부모 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겨울철(12~3월) 1만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겨울철(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겨울철(12~3월) 2만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최소 15만~20만 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



2017 대한민국 별별 트렌드

팩트광·‘꿀’소비·노멀크러시·위너 소비... 결론은 개인의 취향!

세기는 존각을 다투며 빠르게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 새해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 2017년의 흐름을 예측해보자.

박싯별 | 위클리 공감 기자

20대 트렌드 - ‘꿀잼’ 찾는 ‘팩트광’들

● 대한민국 곳곳에도 새로운 가치와 트렌드가 창출되고 있다. 20대는 언제나 새로운 문화를 가장 최전방에서 접하는 트렌드 얼리어답터다. 특히 최근 온라인, 누리소통망(SNS) 등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20대들의 마이크로트렌드가 사회 전반의 유행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시대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했다.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똑똑하게 진짜 팩트(Fact)를 스스로 찾아내고 팩트로 커뮤니케이션하는 20대 팩트광이 오피니언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 꿀’, ‘꿀잼’, ‘꿀알바’ 등 ‘꿀’이란 나에게 더 나은, 즉 ‘Better’를 뜻하는 절대 긍정의 접두어. 내년 ‘나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 요소(꿀)’를 찾는 20대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대는 브랜드나 가성비에 의해서만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격, 시간, 성능, 효율, 트렌드, 순간의 즐거움 등 다양한 조건이 개인이 원하는 비율로 어우러졌을 때 소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서울 흥

대입구에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는 배지환(25) 씨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만족 극대화하기 위한 ‘꿀 소비’ 증가 노멀크러시족, ‘보통의 존재’에 열광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질려 ‘보통의 존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20대 노멀크러시족도 생겨났다. 이들은 엄마가 차려준 집밥처럼 편안하고 소박하게 다가오는 정서를 추구하고, 공감할 수 없는 콘텐츠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포장하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에 열광하며, 나와 다르지 않음에 위로받는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도 강연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현재 지향적 생활 스타일이 젊은 세대로부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20대가 앞으로 소비 주체가 되는 만큼 이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은이&김숙 비밀보장'누리집

©동아DB



1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하는 20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라인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아온 관광객들의 모습 2 무난한 추천을 제안하는 형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 '송은이&김숙 비밀보장' 3 뷰티제품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중국 파워블로거 왕홍의 뷰티 체험 모습.

라이프스타일 분야 - 결정장애엔 '평타'가 특효약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는 무난함을 내세운 '평타'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결정장애증후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 과자, 자취방 침대 같은 소비 품목은 물론이고 방 정리법, 시택 대처법, 연애 고민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온라인상 타자의 추천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5000만 결정장애 국민들을 위한 고민 해결 상담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 비밀보장'이 엄청난 인기를 끈 배경은 바로 무난함이다. 추천은 추천 요구자가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의견이자 조언이다. 여기에는 이미 합의된 모종의 기준이 있다. 즉 무난함, 평타다. 과함은 추천사회에서 단점이나 흠으로 간주된다. 무난함에 대한 선호의 이면에는 '안심'의 심리가 있다.

중년·덕후 등 마니아층 소비 주도

동영상 활용한 스트리밍 쇼퍼 등장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소비할까. 자신의 행복한 삶을 가치관으로 추구하는 30대 '얼리 힐링족'의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동안 30대 고객들의 자동차(국산차·수입차 구매, 주차장, 세차장) 업종, 자기계발 관련(헬스클럽, 골프용품·연습장, 서적·문구) 업종, 여행(항공권, 면세점, 호텔, 렌터카) 업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기간 내 30대 고객들의 전체 업종 평균 성장률이 6.6%에 그친 데 비해 세 가지 업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0%를 기록하는 등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가진 취미 활동을 즐기는 40대와 50대 '뉴노멀 중년'의 활약도 기대된다. 40대와 50대 고객의 매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헬스클럽, 수영장 등 자기계발 업종에서의 매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피부·미용, 애완동물 업종의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덕후'라고 불리는 마니아층 위너 소비자도 주목된다. 위너 소비자는 상품 구매에서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과정과 의미를 부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들의 대표 소비 업종인 완구류 이용금액은 3년 동안 22% 성장했다. 20대(52.3%)와 1인 가구(47.6%)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텍스트보다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이용한 소통 도구를 선호하는 스트리밍 쇼퍼가 내년에도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영상 콘텐츠에 커머스를 접목한 'V-커머스(동영상 쇼핑 플랫폼)'가 스트리밍 쇼퍼들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BC카드는 지난달 한국트렌드연구소와 공동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동영상 쇼핑 사용자 조사와 내비게이션 모바일 쇼핑 사용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스트리밍 쇼퍼와 내비게이션 소비도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트리밍 쇼퍼는 V커머스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접목한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오는 2017년이 국내외 ICT 시장에서 전에 없던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과 기존의 것이 더 편리해지는 '진화'가 공존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5G ▶MR(혼합현실) ▶자율주행차 ▶생체 인증 등의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핀테크 2.0 ▶O2O 서비스 ▶데이터 커머스 ▶산업인터넷·소물인터넷 ▶플랫폼 경제 등의 진화형 서비스가 내년에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



2017 세계 별별 트렌드

음성통화보다 ‘메시지 소통’이 대세 인공지능·가상현실 실용화 성큼

박섫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세계는 내년 트렌드를 어떻게 예측했을까. 우선 전 세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메시지’로 소통하는 문화가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는 휴대전화를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지만, 모르는 번호가 뜨면 웬만해선 받지 않는다. 메시지에는 익숙하지만 음성통화는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인관계 전문가 매리 제인 콕스는 ‘폰포비아(Phone Phobia)’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IT 분야 - 메시징·디지털 기술 플랫폼

월가의 유명 정보기술(IT) 애널리스트 출신 메리 미커의 연례 보고서 ‘인터넷 트렌드 2016’에 따르면 메시징이 모바일 시대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왓츠앱 메신저 사용자는 약 10억 명, 페이스북 메신저는 약 8억 명, 위챗 메신저는 약 7억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2~4배 성장했다. 사용량이 많은 상위 4개 앱의 실사용자 수를 비교하면 지난해부터 메시징 앱 사용자 수가 누리소통망(SNS) 이용자 수를 추월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지난해 기업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온 메신저’를 출시했다. 여행객은 하얏트호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방을 예약하고, 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하얏트

는 이 서비스를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고객 문의가 20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온 메신저를 실시한 뒤 고객 만족도가 65%가 상승했다.

디지털·지능정보 기술 기반으로

생활·산업·마케팅 분야 대변화 예고

세계도 한국과 같이 스마트기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미래 지향형 기술이 내년도 트렌드로 꼽혔다. 세계적인 IT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는 ‘2017년 주목해야 할 전략 기술 트렌드’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한 보편화된 인텔리전스 기술과 사람들 간, 또는 사람과 소프트웨어(SW) 간의 소통을 대변하는 AR·VR·디지털 트윈스 등의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이를 연계해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플랫폼 및 서비스·기술 아키텍처 등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인공지능과 고급 머신러닝은 딥러닝(Deep Learning), 신경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기술 및 기법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도 많은 첨단 기법들이 전통적인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넘어 이해·학습·예측·적응할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스스로 가동되는 자율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지능정보 기술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IBM, 구글, 애플,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을 중



2 3



©동아DB



4

1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내년에는 기업들 간 디바이스를 통해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스마트 시티 월드 엑스포'에 전시된 스마트미터와 전자자동차. 3 지난 10월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 2016' 행사에 선보인 3차원(3D) 공간 촬영 로봇 M1. 4 페이스북 AI 채팅 로봇인 '봇메신저'.

심으로 경쟁적으로 투자가 확대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데이비드 설리 가트너 부사장은 “가트너의 2017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지능형 디지털 메시’를 위한 기초를 준비하는 것으로 주요 기술 트렌드는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마케팅 분야 – 고객 경험·영상 콘텐츠

내년 마케팅 트렌드는 이러한 생활·기술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반영됐다. 포브스는 내년에는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포브스는 고객 중심 철학을 비즈니스에 도입한 기업이 오늘날 더 성공한 기업이 되었다며 고객경험 중심 마케팅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핵심 마케팅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모든 것을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퍼스널라이즈 마케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코카콜라 캔에서부터 나이키 등 신발까지 기존 대량 맞춤화가 개인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비디오 콘텐츠의 중요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내년에는 리뷰, 블로그, e-북, 소셜콘텐츠 등의 비중보다 영상 콘텐츠가 마케팅 영역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내년 마케팅 트렌드로 사물인터넷(IoT)을 꼽았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IoT 기술이 내년에는 기업들 간 수십억 개의 연결된 디바이스를 통해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지목한 것. AI와 챗봇도 2017년에는 비주류에서 주류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브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필요한 것을 알고 먹을 곳, 여행하는 법, 쇼핑할 곳을 가이드할 수 있는 챗봇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 맞춤형 마케팅·미래형 먹거리 부상

AI·챗봇의 활약 기대

덴마크식 슬로라이프인 ‘취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 세계의 라이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콜린스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로 ‘취계’가 3위에 랭크됐다. 2017년 국내 트렌드 주요 도서에서도 취계를 언급했다. 덴마크 행복연구소 마이크 비킹 CEO도 취계 열풍의 원인을 “국내총생산(GDP)으로만 사회 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불만이 역으로 터져나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비킹은 “덴마크는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그 이유는 바로 삶의 행복의 기준을 관계, 따스함, 친밀함, 평등함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전 세계 86개국, 126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세계 각지의 경제, 사회, 문화 흐름을 관찰하며 포착한 새로운 비즈니스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를 꼽았다. 코트라는 우주비행사가 먹는 음식 등 편견을 뛰어넘은 먹거리인 ‘퓨처 푸드’, 일상에서 휴식을 찾는 ‘데일리 디톡스’, 특별한 놀이를 꿈꾸는 인간 ‘호모 루덴스’ 등 일상을 벗어난 새로움이 인기를 얻겠다고 내다봤다. 나만을 위한 휴가인 ‘맞춤형 휴가’나 ‘나를 위한 삶’을 의미하는 ‘온리미(Only Me)’처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생활도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했다. ‘따뜻한 인공지능(Emotional AI·인간을 위한 로봇)’, ‘구루 마케팅(Guru Marketing·신뢰 마케팅)’, ‘펫밀리(Petmily·반려동물 가족)’ 등 삭막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기댈 곳을 찾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6

국립중앙박물관 '이집트 보물展'

이집트 미라 영원한 삶 꿈꾸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 길이 165.7cm, 너비 41.9cm, 높이 29.2cm에 이르는 거대한 가우트세세누 내관(內棺)은 무척 화려하다. 기원전 700년에서 650년께 이집트 테베 지역에서 리넨과 석고, 안료 등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관에는 저승 세계 지배자인 오시리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자갈 머리의 아누비스, 미라가 된 신체의 각 기관을 보호하는 네 명의 호루스 아들이 형상화돼 있다.

내관 곳곳에는 이집트 신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날개 달린 딱정벌레 케프리 신, 배 안에 있는 소카르 신, 매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 신 등이 빼곡히 그려져 있어 보는 사람의 눈을 쏙 빼놓는다.

고대 이집트인 상류층 장례문화 보여주는

사람·동물 미라, 장례문화, 동물 조각상 등 230점

이집트 보물전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2월 20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여는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 이집트 보물전-이집트 미라 한국에 오다'가 그것이다.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이 소장한 이집트 소장품 중 사람과 동물 미라,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진 관, 미라 가면, 상류층 모습이 담긴 조각상, 사자의 서, 다양한 장신구 등 총 230점의 전시품을 선보이는 아시아 최초의 고대 이집트(기원전 3200~332년) 유물 전시다.

웅장한 무덤과 조각상, 정성스럽게 천에 싸인 미라는 이집트 역사에서 죽음과 사후 세계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이집트 왕 오시리스 조각상은 '죽은 자의 신'이라 불릴

가우트세세누 내관/ 테베 (룩소스)/ 기원전 700~650년 제3중간기~후기 왕조시대 제25왕조~제26왕조 리넨, 석고, 안료/ 길이 165.7, 너비 41.9, 높이 29.2cm



1 이시스, 어린 호루스, 네프티스의 삼위일체-이집트/ 기원전 305~30년 2 남성 미라 가면/ 서기 1세기 로마시대 벽토에 도금, 채색/ 길이 50.8, 너비 30.5, 높이 18.5cm 무게 3.4kg 3 미라가 들어 있는 고양이 관-사카라/ 이집트/ 기원전 664~332년 4 새 모습의 바(ba)/ 사카라 서기전 664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제26왕조 추정, 금, 청금석, 타기석, 동석/ 길이 31, 너비 6.8, 높이 0.9cm.

만큼 이집트 신들 중 제1위의 신으로 꼽힌다. 나무를 회칠한 후 도금한 조각상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 없는 영원한 삶의 시작점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구문경 학예연구사는 “이집트인들이 오시리스의 조각상을 만든 것은 자신이 죽었을 때 오시리스와 한 몸이 되어 사후세계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며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시는 사후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던 고대 이집트인의 역사와 문화를 6부로 나눠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죽음과 삶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풍습과 문화를 보여주는 1부에선 오시리스와 호루스의 조각상, 사자의 서 등 25점이 전시된다. 이들 유물을 통해 사후 세계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2부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미라와 만난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 제작 과정과 미라 관의 구조와 시기별 변화를 보여준다. 미라뿐 아니라 석제 외관, 목제 내관, 초상화가 그려진 수의 등 유물 28점은 이집트인들이 추구한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정수다.

고대 이집트인의 역사와 문화 1~6부 나눠 구성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오디오 가이드 제공

3부는 상류층의 장례 풍습을 보여준다. 상류 계층의 조각상과 새 김돌, 부적, 목걸이 등 97점을 전시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과 장례를 위해 많은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으로 여겼다고 한다. 물건을 무덤에 넣는 것이나 무덤 안에서 이뤄지는 의식은 무덤 주인이 사후 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를 기리는 행위인 셈이다.

4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이집트의 장례문화에 대해 상세하게 전한다. 사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값비싼 물품을 준비하고 하다못해 모조품이라도 준비했던 이집트인들, 사후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준비를 금박을 입힌 미라 가면과 각종 재질의 조각상 등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부에선 고대 이집트인들의 동물에 대한 숭배 사상과 문화를 통해 이집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자, 양, 뱀, 원숭이, 개구리 등 동물 조각상 34점이 전시된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동물의 능력과 성격을 신이 내린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동물의 얼굴을 한 신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마지막 6부는 신의 영혼이 깃든 동물 미라를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은 물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봤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천 마리에 달하는 동물 미라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동물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봤는지를 보여준다. 따오기, 쥐, 고양이, 뱀, 악어 등 동물 미라 31점과 미라로 제작된 동물 미라의 성격과 과학적 분석자료를 소개한다.

박물관은 고대 이집트 문명과 전시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과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 G

전시 정보

전시 기간 12월 20일~2017년 4월 9일

전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 시간 월, 화, 목, 금 오전 9시~오후 6시/수, 토 오전 9시~오후 9시/일, 공휴일 오전 9시~오후 7시(1월 1일 제외하고 휴관일 없이 전시 운영)

관람료 성인 1만3000원, 대학생·청소년 1만1000원, 초등학생 8000원, 유아(48개월 이상) 5000원

문의 1688-9891

국제기능대회 은메달리스트 설계 전문가 **김종희** 제이디오 대표 “인생처럼 복잡 미묘한 설계도면 0.1m 오차도 없이 그려내야죠”



김종희 씨는 “설계는 머릿속에 구상한 것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구현해야 하는, 제품을 만드는 첫 단계”라며 “10년 넘게 제품의 첫 단추를 꿰는 부담감과 즐거움 속에 살았다”고 했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지호영 기자

● 아버지의 죽음과 이로 인한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열여섯 살 소년은 열심히 하던 공부를 손에서 놓았다. 그런 그를 안타깝게 여긴 친척이 기술을 배워볼 것을 권유했다. “기초가 부실한 상황에서 공부를 따라가려면 어렵지만 기술은 친구들과 똑같이 시작해 배우는 거니까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소년은 빨리 취업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서른 살 청년사업가가 된 김종희(30) 씨는 올해 7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16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6인 가운데 한 명으로 위촉됐

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2005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기계설계 CAD 부문)에서 은메달을 따고 기술인을 꿈꾸는 특성화고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한 공로다. 12월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기계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업 제이디오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 씨가 2013년 설립한 회사다. 사무실 한쪽 벽면엔 복잡 미묘한 설계도면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는 “내 눈에는 사람과 나무를 그린 그림보다 이게 더 멋지다”며 자신의 지난날 이야기를 꺼냈다.

열일곱 살 홀로 대구행, 복잡한 설계도면에 관심 가져

하루 15시간씩 훈련,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 획득

경북 영천에서 건축을 하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고난은 시작됐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살던 김 씨는 홀로 고향을 떠나 대구에 있는 경북기계공고에 진학했다.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 친척집에서 터부살이를 했다. 줄곧 시골에 살아 기계를 만져본 적 없던 그가 교내 기능반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건 입학 후 기초제도 첫 수업에서 본 ‘설계도면’ 때문이었다.

“복잡하지만 잉크 번짐 없이 깔끔하게 그린 도면이었어요. 머릿속 구상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손으로 그린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상법이다. 물체를 도면으로 표현할 때 빠뜨리는 뷰(View) 없이 최소한의 투상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최적의 설계라 할 수 있다. 그런 도면을 그리려면 다양한 투상법을 물체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 물체 100개가 있으면 설계도면 100개가 나오는 이유다.

학교에서는 김 씨를 포함한 기능특기생 4명을 하루 15시간씩 훈련시켰다. 웅크린 채 종일 도면만 들여다보니 목과 허리가 쭈셨다. 동기들의 입에서 “못 하겠다”는 소리가 나왔지만 그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낮에는 실습을 하고 밤에는 선배들로부터 도면을 검사받았다. 피드백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 단면기법, 공차기입법, 치수기입법 등 온갖 투상법을 공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머리에 입력했다.

고2 때 처음 출전한 지역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김 씨는 이듬해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 국제 대회 출전 과정을 지원해주겠다는 기계설계기업이 있어 졸업하기도 전에 입사했다. 3차에 걸쳐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른 그는 2005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CAD 부문에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실 여기엔 남모를 사연이 있다. 한국은 1977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대회 CAD 부문에서 줄곧 금메달을 땀다. 그런데 김 씨가 출전한 그해 CAD 경기 운영방식이 대폭 바뀌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보였던 항목의 배점이 크게 낮아졌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던 국내 지도자들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경기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상심이 컸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에겐 꿈이 있었다.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거였다. 김 씨는 “학교에선 기존에 있던 제품을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를 하는데 산업 현장에선 없던 것을 만들기 위해 설계한다. 처음엔 아무 것도 없이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막막했다”고 했다.

김 씨는 설계팀이 아닌 조립 라인에 지원했다. 다른 사람이 설계한 것을 실제로 조립하고 동작하면서 설계 개념을 익혔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자 백지상태에서도 설계를 할 수 있었다.

그는 2013년 돌연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신사업을 준비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5개월 치 임금이 밀렸기 때문이다. 김 씨는 “설계팀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도면을 제작 대행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결국 회사를 차렸습니다. 원대한 포부가 있어 창업을 한 건 아니지만 평소 지난 10년간 쌓은 기술력을 산업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피치 못할 상황이 저를 창업의 길로 이끌었지만 덕분에 새로운 기계설계를 자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과제로 설계한 보안검색대 상용화 예정

기술인 꿈꾸는 후배들의 러닝메이트 되고파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보안검색대를 수입한다. 정부 과제로 선정된 김 씨는 지난 10년간 직장에서 습득한 산업용 엑스레이 설계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보안검색대를 설계했다. 이 장치는 곧 국내에

김종희 씨는 “기능특기생으로 선발된 후 선배들로부터 매일 밤 도면을 검사 받았다”며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다.



설치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씨가 설계한 독자적인 기계 설계는 현재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 씨는 “높이 2.5m에 달하는 철제 코일을 사람이 직접 포장하던 것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백 개 부품을 설계하고 일부는 제작까지 했다”고 했다.

‘한 분야에 10년이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른바 ‘10년의 법칙’이다. 그는 “맞는 말이지만 10년이란 숫자에 너무 갇혀 있지 말라”고 조언했다.

“기능 분야에선 통용될지 몰라도 기술 분야는 꼭 그렇지 않아요. 10년 넘게 일한 저도 이제 겨우 설계한다고 명함을 내미는 수준이니까요. 쫓아가야 한다는 조급함을 가지면 어떤 일이든 오래 하기 힘들니다.”

김 씨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인천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특성하고 고교생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한다. 총 5일 동안 기계설계부터 제조까지 체험하는 ‘통합설계 제조과정’이다. 그와 만난 고교생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도면을 하나씩 가져간다. 그가 14년 전 고교 입학 후 기초제도 수업시간에 봤던 설계도면이다.

“누구나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길을 잃고 헤매지요. 그때 우리의 인생사처럼 복잡하지만 반듯하게 설계한 이 도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아주세요.” 6

전업주부 19년 만에 의류 쇼핑몰 운영 **양수** 씨

“처음 하는 사회생활 고되지만 이제야 살아가는 법 터득해요”



양수 씨는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이 고단하지만 비로소 인생을 사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진·박해윤 기자

● 모던하고 심플했다. 보온성 좋은 본딩 원단으로 만든 슬랙스 팬츠, 부드럽고 두께감이 적당해 간절기뿐 아니라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울 혼방 모직으로 만든 아우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주름 잡힌 울 원단의 플리츠키퍼트까지 옷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경기 용인시의 작은 옷가게. 이곳에 문패를 단 와이옌수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무실이자 오프라인 의류 매장이다. 이곳에 등지를 뜬 지 6개월이 된 양수(42) 씨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만 구성했더니 이런 스타일이 완성됐다”며 웃었다.

그가 운영하는 옷가게엔 없는 게 많다. 알록달록한 간판이 없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없고, 디스플레이용 마네킹이 없다. 그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다. 양 씨는 “고객들이 오로지 옷만 보고 옷을 사는 쇼핑몰과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화려하고 잘나가는 쇼핑몰 따라 이벤트에 치중하다 보면 옷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객이 행사가 아닌 정말 옷에 반해 사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벤트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옷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한 모든 고객에게 1만 원 상당의 레깅스와 같은 사은품을 발송한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택배에 고객들은 감동한다고 한다.

“올해 6월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 6000여 명의 고객이 회원 가입을 했어요. 특별한 프로모션은 없지만 오픈 5개월부터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돼요.”

대학 졸업 후 결혼, 19년간 전업주부 생활

마흔 넘겨 시작한 사업... 상인들 푸대접에 오기 발동

양 씨는 어린 시절부터 옷을 좋아했다. 그렇다고 해서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것도 취미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러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났다. 19년을 전업주부로만 살았다.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지난 19년의 삶, 그것도 나름 행복했다. 그러다 마흔둘이 되고 남은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던 때,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다가 빨간불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다. 우연히 고개를 돌려 옆 차 운전석을 봤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신호 대기 중에 정신없이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일 본도 안 되는 시간에 화장을 후딱 마치는데, 저 사람에겐 자신을 꾸미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 시간을 더 투자해 몰입할 일이 있겠지 싶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동대문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옷을 구경하고 입어볼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옷을 한번 팔아볼까 싶었죠.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

에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올봄, 바람도 쉴 겸 경기IT새로일하기센터가 마련한 ‘쇼핑몰 마스터 양성과정’에 등록했다. 그런데 수업을 위해 진짜 의류 쇼핑물을 차려야 했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 씨는 남편에게 그동안 주부로서 일했던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준비 과정은 힘들었다. 취미로 동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옷을 구경할 땐 하나같이 친절하게 대하던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왔다고 하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쭈마, 초짜한테는 물건 안 줘.” 자꾸만 푸대접을 받으니 속으로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싶어 당장 그만둬야지 했다. 그즈음 기 센 동대문 상인의 한마디. “그런다고 집으로 돌아가버리면 평생 옷 못 팔아. 시장 못 뚫어놓고 어디 가서 옷 좀 팔았던 소리 하면 안 돼.”

속내를 들킨 것 같았다. 지고 싶지 않았다. 3개월간 동대문 새벽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한테 눈도장을 찍었다. 어느 날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데 그의 눈을 사로잡는 스커트가 있었다. 장식은 없지만 원단이 좋아 절로 라인이 잡히는 옷이었다. 양 씨가 그 옷을 보겠다고 했더니 상인이 말했다. “옷 좀 볼 줄 아네.”

“원단으로 승부를 보는 옷의 장점은 입었을 때 고급스럽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 원단이 좋으면서도 가성비를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을 골랐어요.”

시행착오는 생활의 지혜 터득해가는 일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제대로 하고파

차츰 일에 재미가 들렸다. 하지만 한 고비 넘으니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몰을 알리고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마케팅이었다.

“저와 계약한 광고대행사가 있어요. 100만 원가량 받고 인터넷 포털 누리집에 우리 의류 쇼핑물을 노출해주는 거죠. 저한테 큰돈인데, 광고대행사에선 그 정도 금액의 고객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그런 광고대행사 담당자한테 우리 쇼핑물을 신경 써달라고 애원하듯 부탁해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속상했어요.”

이제껏 사회생활을 안 해봤던 그로선 처음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건 삶을 터득해가는 일이다. 양 씨는 “19년



양수 씨는 “사업의 기본도 모른 채 의류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단 시작하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고 했다.

만에 처음 일을 하면서 비로소 생활의 지혜, 머리가 트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저는 남들이 사람들과 부딪혀 갈등하고 해결을 모색할 때 집 안에만 있었어요. 유예됐던 사회생활 훈련을 이제야 받으니 고객의 요구를 맞추는 일, 원하는 주문 사항을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일, 돈 버는 고됨과 보람,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이룬다는 의미를 터득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나선 삶이 달라졌다. 특히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번도 가족과 대화가 안 된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말하기 힘든 답답함이 있었다.

“집에서만 지낼 땐 남편과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지쳐서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씻고 밥 먹어라’, ‘게임하지 말고 숙제해라’ 하고 말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족한테 잔소리였던 거죠. 그걸 지금껏 이해하지 못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그는 조만간 회원 수가 2만여 명에 달하면 옷을 자체 제작해볼 참이다. 19년 만에 전공을 살려 의상을 디자인하는 게 꿈이다.

“성공한 여성 CEO가 되기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 언젠간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G**

아시아 한류의 미래 '현지화'와 '쌍방향' 전략이 필수다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12월 7일 밤 베트남의 수도 호치민의 탄손누트국제공항. 인천을 출발해 도착한 한국 여객기 손님들이 짐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데 주변이 소란스럽다. 공항 청사 2층 유리벽으로 막힌 바깥에서 10대 소녀 무리들이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놀려댄다.

피켓에는 슈퍼주니어의 '예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제야 눈치를 채고 살펴보니 옆에 예성과 일행이 짐을 찾기 위해 서 있었다. 자정이 지난 시각, 호치민 시내에서 공항까지 짧은 거리임에도 예성의 베트남 팬들이 환영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한류의 풍경이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여전히 거세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베트남은 이와 무관하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와 다른 심의기준을 제외하면 한국 대중문화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

한국 멀티플렉스 스크린 200개

한국 영화 관객 동원 2500만 명

한국 영화는 자국 영화만큼이나 친숙하고, 한국의 멀티플렉스가 영화시장을 휩쓸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8개에 불과하던 CGV와 롯데시네마가 지금은 42개로 늘어났고, 스크린 수도 200개를 넘어섰다. 올해 이들 극장의 관객 동원도 2500만 명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한국 콘텐츠의 일방적 수출만으로 베트남에서 한류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미 20년 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수상한 그녀'의 베트남 리메이크 버전인 '내가 니 할머니' 포스터.

까이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것에 자극받아 자국 문화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류의 일방적인 흐름도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선망과 호기심의 대상이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베트남 젊은이들의 평가도 달라졌다. 자국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가짜'라는 소리가 나온다. 일방적 흐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우리의 한류 전략도 바뀌고 있다. 이른바 '현지화'다. 이미 중국에서는 시작한 지 오래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콘텐츠, 제작 노하우로 베트남 현실과 정서에 맞춘 콘텐츠를 만드는 것. 영화에서는 지난해 말 개봉한 '수상한 그녀'의 베트남 버전인 '내가 니 할머니'가 대표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해 최고 흥행작에 올랐고, 역대 베트남 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 80

만 달러를 투자해 무려 4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것도 아무런 반감 없이.

K-팝과 오락 프로그램의 현지화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2013년 베트남 방송채널인 VTB에서 방영한 '노이 사오 비엣'은 우리의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베트남화한 것이다. '칸칸쇼'는 베트남 연예인을 초대해 한국 스타일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이고, 베트남 가수들이 팬들의 신청곡을 부르는 '시키면 부른다' 역시 우리의 예능 프로그램을 현지화한 것이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지난해부터는 지상파 방송이 아닌 모바일 앱의 예능까지 우리 프로그램을 현지 버전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사실 단순한 콘텐츠 수출에서 벗어난 이 같은 한류의 현지화 전

락은 베트남에서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베트남 영화와 드라마에 한국 감독이나 스태프가 참여하고, 우리의 제작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자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고 대중문화 산업과 시장을 키운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기도 했다. 나아가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수출하겠다는 장기적인 포부까지 가지고 있다. 이른바 ‘쌍방향’ 문화 흐름이다.

쌍방향은 문화의 자연적 흐름

현지 현실과 정서에 맞춘 콘텐츠 만들어야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그렇듯이 한류도 언제까지 일방적일 수는 없다. 그들의 문화 또한 우리 가까이로 다가와야 한다. 2007년 한·베트남 최초 합작영화인 ‘므이’(감독 김태경)에 베트남 언론과 영화계, 관객들은 가슴 벅차했다. 한국 영화가 베트남 이야기를 하다니, 베트남 배우가 한국 영화에 나오다니,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자부심으로 이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참패했다. 제작비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작품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었다. 합작영화가 흔히 그렇듯 ‘므이’는 두 나라의 이질적 거리감을 섬세한 감정의 일치로 좁히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촬영하고, 베트남 여배우가 주연급으로 나오는 영화라는 선입견도 작용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0년, 순수 베트남 영화 사상 첫 한국 개봉의 ‘역사’를 쓴 르후인 감독의 ‘하얀 아오자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해 베트남 전역에서 개봉돼 우리나라로 치면 1000만 명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관객을 눈물바다로 만든 영화였고,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호평을 받아 관객상을 수상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렵게 대기업 멀티플렉스 12개관을 확보하고, 베트남에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주한 베트남대사까지 극장에 영화를 보러 왔지만 보름도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한국 관객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무관심했고, 농촌에 사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은 처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센터 하노이’ 오픈식에서 소녀시대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음으로 모국의 대중영화를 접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런 실패를 겪은 ‘므이’의 제작자는 지금 아예 이 작품을 ‘여고괴담’처럼 순수 베트남 버전의 시리즈로 현지화해 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얀 아오자이’ 대신에 한국 영화 ‘집으로’에서 아이디어를 따와 농촌 체험활동을 위해 외가인 베트남에 간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외할머니와 겪는 문화적 충돌과 사랑 이야기를 영화 ‘늙은 자전거’에 담아 베트남과 한국에서 상영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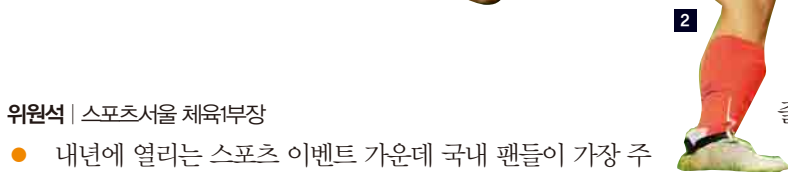
모든 나라에서 그렇지만, 특히 베트남에서의 한류의 미래는 역시 현지화와 쌍방향에 답이다. 우리도 베트남 콘텐츠를 받아들이야 한다. 문화의 자연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수많은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있고, 그들을 위한 모국의 대중문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050년이면 다문화가족이 전체 인구의 5.11%(216만5000명)를 차지하고, 아이들만 1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초 등학생의 15.3%, 중학생의 12%이다. 그들에게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외면하고, 우리 문화만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6



2017년 WBC(야구)·U-20 월드컵(축구)·평창 테스트이벤트 열려

흥미진진한 빅 이벤트에 스포츠 팬 시선 쏠린다



위원장 | 스포츠서울 체육부장

● 내년에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국내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회는 역시 제4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꼽을 수 있다. 총 16개국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는 이 대회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부 라운드가 열려 국내 팬들의 기대가 더욱 크다.

WBC는 16개국이 4팀씩 4개 조로 나눠 라운드 로빈 방식(같은 조 팀끼리 한 번씩 경기)으로 1라운드를 치른다. 여기서 각조 1, 2위를 차지한 8팀이 2개 조로 나뉘어 다시 한 번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2라운드를 열고 또다시 각조 1, 2위를 한 4개 팀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4강 토너먼트로 챔피언을 가린다. 한국은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과 함께 A조에 편성됐는데 이 A조의 6경기가 3월 6일부터 9일까지 바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한국은 역대 WBC에서 비교적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2006년 열린 1회 대회에서 4강을 차지했고 2009년 벌어진 2회 대회에서는 준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 하지만 2013년 열린 3회 대회에서는 그만 1라운드 탈락의 쓴잔을 마시고 말았다. 전문가

들은 이번 대회에서는 2라운드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이번 WBC 대표팀에 최강의 전력을 꾸릴 수 없는 내적 제약 조건과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각국 대표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적 변수가 더해진 데 따른 예상이다.

WBC 1라운드 3월 6~9일 국내에서 열려

주력 멤버 이탈 아쉬움 속 김인식 감독의 리더십 발휘 기대

한국 대표팀에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에이스 김광현(SK)은 팔꿈치 수술을 받게 돼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투타에서 '차포'가 빠진 상황에서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 정근우(한화), 이용찬(두산) 등 주력 멤버가 줄줄이 대열에서 이탈했다. 마무리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출격도 불발됐다. 최상의 전력에 비한다면 '1.5군' 정도의 전열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 투수 라인업의 불균형도 아쉬운 대목이다. 김광현의 부재 속에서도 좌완에는 장원준(두산), 양현종(KIA), 차우찬(삼성) 같은 수준급 투수들이 버티고 있는 반면 우완은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기대되는 요소도 있다. 홈그라운드인 이점과 김인식 감독의 리더십이다. 이번 대회 1라운드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표팀은 현지 적응의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고 국내 팬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홈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또 1회 대회 4강 진출과 2회 대회 준우승, 그리고 지난해 '프리미어12' 원년 대회에서 기적의 우승을 일궈냈던 김인식 감독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경기 운영이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만은 모두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대다. 김 감독은 이 가운데 네덜란드를 최대 난적으로 꼽았고 이스라엘과 대만도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난 3회 대회 1라운드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는데 0-6으로

1 WBC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김인식 감독. 2 U-20 월드컵에서의 활약상이 기대되는 스페인 FC바르셀로나 후베닐 A 소속의 이승우 선수. 3 주력 멤버들의 이탈 속에서도 WBC 한국 대표팀의 마운드를 책임져줄 것으로 기대되는 장원준 선수.



한국이 완패하며 조별 리그 탈락의 빌미가 됐던 팀이다. 이번에도 잔더 보가츠(보스턴 레드삭스), 안드렐론 시몬스(LA 에인절스), 조너선 스콧(볼티모어 오리올스) 등 3명의 메이저리거가 네덜란드 대표팀에 포함돼 요주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1라운드를 통과하면 3월 12일부터 도쿄돔으로 옮겨 B조 상위 두 팀과 다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2라운드를 치른다. 2

라운드에서는 역대 WBC에서 우리와 많은 명승부를 펼쳤던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 또 한 번 승부의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야구에 WBC가 있다면 축구에서는 2002 한·일월드컵의 감동을 재연할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이 벌어진다. U-20 월드컵은 FIFA가 주관하는 대회로는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큰 대회이며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U-20 청소년 대표팀은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1983년 박종환 감독이 멕시코 대회에서 이뤄냈던 4강의 성적을 34년 만에 다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역대 U-20 월드컵은 미래의 세계 축구를 이끌 새로운 스타를 배출하는 등용문으로 각광받아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 등 스페인 FC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삼총사'가 비상을 기약하고 있다. 특히 동년배에 비해 두어 수 위의 기량과 감각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승우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국내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이란 등의 출전이 확정된 가운데 본선 조 추첨은 3월 15일 열린다.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등 평창 테스트이벤트 이어져 7월 세계선수권 출전하는 박태환 선수 재기 여부도 관심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동계스포츠의 주요 대회와 평창 테스트이벤트도 벌어진다.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는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카자

흐스탄 알마티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펼쳐진다. 동계 종목의 특성상 이 두 대회에 세계 톱클래스의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 대회 앞두고 우리 선

수들이 전열을 정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월부터 4월까지 평창과 강릉 등지에서는 국제스키연맹(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2월 3~5일 알펜시아),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2월 9~12일 강릉), 피겨 4대륙 선수권대회(2월 16~19일 강릉) 바이애슬론 월드컵(3월 2~5일 알펜시아), 봅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3월 17~19일)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주요 종목 테스트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진다.

2017년 국내 팬들에게 시선을 모으는 또 다른 이벤트는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벌어지는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다. '마린보이' 박태환(인천시청)의 재기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박태환은 우여곡절 속에 2016 리우올림픽에 출전했지만 실망스러운 기록으로 선수 생활 연장이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자유형 200m, 400m, 1500m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3관왕에 오르며 '제2의 전성기'를 예고했다. 50m짜리 롱코스 정규 규격 수영장이 아니라 25m짜리 작은 수영장에서 열리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은 턴과 잠영 동작이 롱코스보다 두 배 많기 때문에 기록도 롱코스보다 더 빠른 특성이 있어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박태환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태환은 2017년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확실한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회에서 쑨양(중국), 맥 호튼(호주), 하기노 고스케(일본), 제임스 가이(영국) 등 쟁쟁한 라이벌들과 정면승부를 펼치며 진정한 명예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누구보다도 굴곡진 여정을 겪었기에 박태환의 재기 여부에 스포츠팬들의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6



단순·소박·화목·편안함 추구... 일상 속 소소한 행복찾기

덴마크식 슬로 라이프 '휘게'가 뜬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소박하고 안락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 '휘게(Hygge)'가 뜨고 있다. 덴마크의 라이프스타일을 칭하는 휘게는 지난 11월 옥스퍼드 영어사전 '올해의 단어' 후보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영국 콜린스사전이 꼽은 올해의 단어 3위(1위 브렉시트, 2위 트럼피즘)에 올라 주목받았다. 2017년 트렌드 전망 도서인 <트렌드 코리아 2017>, <라이프 트렌드 2017> 등에도 언급돼 다가오는 2017년 휘게 열풍을 예고했다.

덴마크어 휘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Coziness, 즉 안락함, 아늑함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느긋하게 어울리는 친교 활동을 말하지만, 대체로 감사하는 마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기쁨, 화목함, 파스함 등이 다 휘게에 포함된다. 남들에게 뭐가 대단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안락함·파스함 등을 뜻하는 덴마크어 '휘게'

미니멀 라이프·킨포크에 이은 전 세계 휘게 열풍

덴마크는 유엔이 올 초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2016'에서 행복지수 1위에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

수'에서는 38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인의 행복에 덴마크인의 라이프스타일, 휘게가 미치는 영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휘게는 겸손하고 소박하며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덴마크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다.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었을 때 행복감이 또렷해진다는 것이다. 오래되고 역사가 담긴 물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례로 덴마크인은 가구나 생활 집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 가족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매개체로 여기기도 한다. 가족 간의 휘게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휘게 이전에는 웰빙과 단샤리(미니멀 라이프), 키포크가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를 이끌었다. 2010년께 영미권에서 촉발된 미니멀 라이프 열풍은 누리집 '미니멀리스트'의 등장에서 비롯됐다. 잘나가던 회사에 돌연 사표를 던진 20대 후반의 운영자들은 "좋은 차, 큰 집을 가졌지만 주 70~80시간을 일하고 물건을 사들이는 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며 물건을 줄이고 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사이트는 1년 만에 방문자 수가 월 10만 명을 넘어서며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단샤리(斷捨離)'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요가의 행법에서 착안한 말로, 일상의 불필요한 것을 끊어버린 심플한



©shutterstock

1 소박하고 인락한 상태를 뜻하는 덴마크어 '휘게'가 뜨고 있다.

2 3 촛불을 켜고 달콤한 차 한 잔을 마시며

3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휘게 라이프'다.

삶이나 처세 등을 일컫는다. 단샤리 열풍을 타고 스타덤에 오른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의 정리법 등은 영미권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몇 년 전부터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키포크(Kinfolk)가 등장했다. 키포크는 미국 포틀랜드의 한 부부가 발간한 잡지 이름이다. 지인과 음식을 나누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이 잡지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제철 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녹색 식물을 집 안에 들여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키포크를 잇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바로 휘게다.

과사용 아닌 자기만족 위한 아이템 소비 늘어나

치열한 경쟁사회 피로감... 소박한 삶, 관계 속 행복 찾는다

한국에서도 휘게 열풍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최근 한 달간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월등하게 많이 팔린 물품 중 하나는 바로 꽃병(270% 증가)과 향초(53% 증가)였다. 과시형 상품이 아닌 자기만족형 아이템을 통해 내면의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는 소비 행태라는 평이다. 한 인테리어·가구업체에서는 원목 소재 가구와 대형 테이블이 전년 대비 2배가량 더 팔렸다. 휘게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따뜻한 소재의 원목,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형 테이블의 구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덴마크 행복연구소 CEO 마이크 비킹은 한 인터뷰에서 휘게 열풍의 원인을 “국내총생산(GDP)으로만 사회 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불만이 역으로 터져 나온 것”이라

고 분석했다.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 1위인 것도 덴마크인의 행복의 기준이 ‘관계, 파스함, 친밀함’ 등에 있기 때문이다.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연구소 소장은 저서 <라이프 트렌드 2017>에서 “물질만능주의, 치열한 경쟁, 이 속에서 젊은 층은 이제 휘게까지 받아들이게 됐다”며 휘게 열풍의 배경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생활 속 휘게는 어떻게 실천할까. 우선 소중한 사람들, 즉 가족과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과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때 휴대전화와 TV는 잠시 꺼두고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 당장 어색하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로 시작하면 도움이 된다.

내가 머무는 공간, 나의 보급자리를 사랑하고 가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집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구심점이 되기에 비싼 가방이나 옷을 사는 것보다 집을 꾸미는 것이 훨씬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휘게 문화에서는 외식 대신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데, 이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한국식으로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내기보다 간소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서로 부담이 없어 ‘휘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방 안에 촛불을 켜고 가까운 지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이 모두 ‘휘게’하는 삶에 해당한다. 6

전국 곳곳 체험 행사·볼거리 풍성

“추위야 물러갔거라, 우리 가족 나가신다”

본격적인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각종 축제가 전국에서 열린다.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산천어·빙어낚시는 물론 LED 조명 수백만 개로 수놓은 차밭, 아이들이 좋아할 캐릭터 얼음조각,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일출 축제 등 볼거리가 넘친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충남청양군청 제공



보성군청 제공

낮과 밤이 얼음으로 빛나는 겨울왕국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 일대에서는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 열린다. 크리스마スイ브에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온통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칠갑산 산골 마을을 무대로 펼쳐진다. 마을 입구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얼음분수와 얼음동굴, 소원터널 등 색다른 볼거리가 마련된다. 뽀로로, 라바, 로보카 폴리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거대한 눈 조각으로 변신하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개장 시간에는 색색 조명으로 빛나는 초록색 호랑이, 분홍색 이글루, 노란색 뽀로로 등을 만날 수 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눈썰매와 얼음봅슬레이, 집트랙(와이어에 몸을 매달고 이동하는 레저 체험), 빙어낚시 등 다양한 놀거리도 준비된다. 이 밖에 조롱박 추출물로 천연화장품 만들기, 조롱박 공예품 만들기, 만화가가 그려주는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간 12월 24일~2017년 2월 12일

장소 충남 청양군 알프스마을 일원

문의 041-942-0797~8

충무공을 테마로 한 빛의 향연

보성 차밭빛축제

여름이면 초록 물결을 이루는 전남 보성의 드넓은 녹차밭이 올겨울 눈부신 조명옷을 입는다. 약 200만 개의 LED 전구를 사용해 녹차밭을 빛으로 물들이는 보성 차밭빛축제가 내년 1월 말까지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길이 150m, 높이 120m의 대형 트리는 봇재다원에 설치된다. 오색 물결의 은하수 터널과 공룡·용·사슴 등의 형상을 만들어낸 빛 동산, 주변 수목을 이용한 빛광장은 물론 소망나무, 포토존 등의 다양한 조명 시설이 시선을 빼앗고 소망카드 달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빛 축제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이순신, 희망의 빛'이라는 축제 주제에 걸맞게 울포솔밭해수욕장 일원에 거북선 용머리와 청룡, 장군의 투구 등 이순신을 테마로 한 빛거리를 조성했다. 아울러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조형물을 해수욕장 수변에 설치하는 등 환상적인 밤바다를 연출했다.

기간 2017년 1월 31일까지 오후 6~10시(금·토·공휴일은 자정까지)

장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한국차문화공원 및 울포솔밭해수욕장 일원

문의 061-850-5211

1급수 토종 민물고기가 한가득 화천 산천어축제



©재단법인! 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가 2017년 1월 7일부터 약 3주간 열린다. ‘얼지 않은 인정, 녹지 않은 추억’이

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산천어 체험을 비롯해 눈·얼음 체험(눈썰매, 봅슬레이, 피겨스케이팅 등)과 각종 문화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전 세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인 만큼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 얼음축구, 민속놀이터 등 1박2일로도 부족한 60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얼음 밑의 귀족어라 불리는 산천어는 1급수 맑은 계곡에서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다. 산천어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C, E 등이 많아 황산화와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

기간 2017년 1월 7~29일

장소 강원 화천군 화천천 및 3개 읍·면 일원

문의 1688-3005

문화해설사와 함께 문화유산 탐방 체험 제주 성산일출축제



©성산일출축제 사무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인 제주 성산일출봉 일원에서 12월 30일부터 3일간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성산10경 마을 탐방, 세계지질공원 탐방, 명사와

함께하는 일출 바닷길 걷기 등 3개 상설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다.

성산10경 마을 탐방은 성산마을의 숨은 비경과 역사 찾기 프로

그램으로 꾸며졌다. 세계지질공원 탐방은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 화산섬 제주의 경이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마지막으로 명사와 함께하는 일출 바닷길 걷기는 1월 1일 성산일출봉 행사장에서 일출 해안길을 따라 새해 아침 첫 햇살을 받으며 광치기 해변까지 왕복하는 걷기 행사다. 위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나 누리집(www.sunrisefestival.kr)을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기간 12월 30일~2017년 1월 1일

장소 제주 성산일출봉 일원

문의 064-760-4282

차령산맥의 수려한 경관이 어우러진 안성 빙어축제



©안성빙어축제사무국

겨울을 맞아 한창 물이 오른 빙어를 경기 안성에서 만날 수 있다. 겨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안성 빙어축제가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20년 동안 조성한 빙어 자원을

바탕으로 열리는 안성 빙어축제에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광혜원 저수지는 차령산맥 물줄기의 전형적인 계곡형 1급수 저수지로, 안성을 대표하는 총면적 18만 평의 대형급 저수지다. 차령산맥 계곡의 수려한 풍경, 맑은 물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일품이다. 축제는 저수지 최상류에서 진행되는데, 오염원이 없어 1급수 맑은 물에서 자생한 빙어를 바로 잡아서 회로 먹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깨끗함을 자랑한다. 빙어낚시 외에도 어린이눈썰매장, 가족이 함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눈꽃포토존, 연날리기, 민속놀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기간 12월 24일~2017년 2월 5일

장소 경기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465번지

문의 031-674-4528

박물관·미술관 새해맞이 이벤트 다양

“손잡고 가봐야지, 재리난 잔치”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둔 12월은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린이박물관은 산타를 등장시킨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는가 하면, 만화박물관은 정유년을 기념하는 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겨울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이 준비한 특별한 체험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룡 발자국 찾고 별자리도 만들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첫 번째 겨울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별 프로그램은 산타와 함께하는 미술쇼를 비롯해 공룡 발자국을 식별하는 체험, 가족의 별자리를 만들어보는 체험 등 전시장별 주제에 맞춰 10여종의 상설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2017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별별 무슨 별? 밤밤 무슨 밤?’과 함께 산타와 함께하는 미술쇼,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난 5월 문을 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영아, 어린이, 가족, 학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연생태와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해왔다. 쥐라기 시대의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모형을 타고 놀 수 있는 ‘클라이머존’, 공룡 화석을 발굴해보는 ‘공룡존’, 개미집 탐방이나 별자리 관찰이 가능한 ‘숲 생태존’ 등의 체험공간이 있다.

기간 12월 20~25일

장소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46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문의 031-860-286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색을 탐하는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고색창연한 옛 색을 찾아 나서는 특별전을 실시한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때깔, 우리 삶에 스민 색깔’은 한국인의 삶에 투영된 다채로운 색의 상징과 색감을 경험하는 자리로, 홍선대원군 초상(보물 제1499호), 흑초의(중요민속문화재 제13호), 색동두루마기 등 전통 생활품부터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350여 점의 자료와 영상물이 전시된다.

색은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시대에 따라 의미와 상징이 달라진다. 이번 전시는 전통 유물을 통해 우리 색의 생성과 변화를 보여준다. 1부 ‘단색’에서는 한국적 정서와 가치관이 담긴 대표적 색인 청, 적, 황, 백, 흑색을 소개한다. 2부 ‘배색’에서는 오행을 따른 음과 양의 조화, 상생과 상극의 어우러짐을 색으로 표현한 유물과 작품들이 전시된다. 3부 ‘다색’에서는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뿐 아니라 중요한 의례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색채 감각을 다룬다.

기간 2017년 2월 26일까지

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문의 02-3704-3114

크리스마스·새해 이벤트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우리 만화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전승하고자 설립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12월 24일과 25일에는 박물관

초대권을 증정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27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복주머니 그리기' 행사, 2017년 정유년을 기념하는 '닭치고 복 받자'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나만의 특별한 달력을 만드는 '만화 달력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박물관 2층 체험교육실에서 열리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간 2017년 1월 말까지

장소 경기 부천시 길주로 1 한국만화박물관

문의 032-310-3055

'꼬마 눈사람의 겨울 이야기' 특별전 조명박물관

조명박물관



조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 양주 조명박물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전 '꼬마 눈사람의 겨울 이야기'가 마련된다. 체험전은 체험(크리스마스 전구

만들기, 눈사람 카드 만들기 등), 전시, 공연(빼꼼이의 크리스마스 대소동), 포토존 등으로 구성되어 퀴즈 풀고 선물 받기,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 찍기, 산타 선물 받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기간 2017년 1월 31일까지

장소 경기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조명박물관

문의 070-7780-8911

3년 만에 한국 찾은 체코의 국민작가 알폰스 무하,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展

알폰스 무하



3년 전 성황리에 마친 '알폰스 무하, 아르누보와 유토피아'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 무하전이 열린다. 첫 번째 회고전이 무하의 예술적 커리어의 발전을 기반으로 철학적 측면을 부각한 전시였다면, 이번 전시는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선구자로서 예술적 업적에 중점을 둔다. 엄선된 300여 점의 유화, 판화, 사진, 장식품, 드로잉 등이 전시된다.

기간 2017년 3월 5일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층

문의 070-4632-6547

일렉트로닉 음악과 결합된 황금빛 색채 클림트 인사이드展

S-FACTORY



황금 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태어난다. 빈 분리파 결성부터 황금시대 개척까지의 클림트의 작품과 일렉트로닉 음악

이 결합된 웅장하고 환상적인 공간에서 전시된다. 총 6개 섹션으로 나뉜 전시장에서는 베토벤을 기리는 작품 '베토벤 프리즈'를 비롯해 '유디트', '키스' 등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기간 2017년 3월 3일까지

장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S-FACTORY

문의 1522-1796

강추위 몰려오고 술자리 잦은 연말 건강관리법

숙면·슈퍼푸드로 면역력 높여라

요즘 같은 영하의 날씨에는 면역력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몸의 온도가 1℃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체내로 침투하는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적 힘을 말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돼 감기나 장염 등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한겨울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면역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마늘이다. 마늘의 대표적 성분인 알리신은 강한 살균작용과 항균작용이 특징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마늘을 ‘성질이 따뜻하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를 따뜻하게 한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해충을 죽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들어간 건강식품) 브로콜리도 면역력 강화에 좋다. 브로콜리에 풍부한 비타민A는 피부나 점막의 저항력을 강화해 감기나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브로콜리 싹에는 비타민A의 전구물체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들어 있어 면역력 증진은 물론 야맹증에도 좋다. 브로콜리를 기름에 볶아 섭취하면 비타민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줄기부터 넣으면 비타민C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마늘, 브로콜리, 아몬드 등으로 면역력 높여라

가벼운 운동과 함께 하루 6~8시간의 숙면은 필수

버섯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베타글루칸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이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버섯에 들어 있는 식이섬유는 장을 활성화해 면역력을 향상한다.

굴이나 고등어 등 해산물도 면역력 강화에 좋다.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백혈구로 대응하는데, 백혈구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약해진다. 굴에 함유된 셀레늄은 백혈구를 생성하는 성분이다. 또 고등어, 참치, 콩치 등 등푸른생선에 면역력을 높이는 셀레늄과 엽산, 오메가3 등이 많이 들어 있다.

현미, 보리, 귀리, 울무, 메밀 등의 잡곡도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현미에 함유된 아라비노실란 성

이미지출처



몸의 온도가 1℃만 떨어져도 인체 면역력은 30% 가까이 떨어진다. 마늘, 브로콜리, 아몬드는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분은 5탄당(탄소 원자 5개를 갖는 단당)의 일종으로 면역 증강작용을 하며 암, B형 간염, 류머티즘과 같은 고질병 치료에도 활용된다.

아몬드,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캐슈넛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E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천연식품인 아몬드에는 호두의 17배에 달하는 비타민E가 들어 있는데, 이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아몬드의 갈색 껍질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백혈구를 강화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는 호두는 하루 7개만 먹어도 질병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음식 섭취 외에도 올바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외출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의식적으로라도 햇빛을 쬌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밖에 나갔다가 온 후에는 꼭 손을 씻는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 하루 6~8시간의 숙면도 필수다. 잠자는 동안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은 세포 생성과 손상된 세포 복구를 돕는 등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므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생활습관을 들인다.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이 약해지면 몸에도 이상이 생기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연말 술자리 소주 2잔, 맥주 3컵이 적당

사과·부추·올리브 오일 독소 배출, 간 기능 강화

12월은 강추위와 함께 술자리도 잦아지는 달이다. 술자리가 늘어나면 가장 먼저 적신호가 켜지는 신체 장기가 간이다.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 영양소로 저장하고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피로감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따라서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간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간 기능(해독 기능)을 높이는 것이 좋다.

간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은 사과다. 사과에는 펙틴이 풍부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배출해준다. 간이 해야 할 해독작용을 사과가 대신 해주는 셈인데, 간의 부담이 줄어들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부추도 간 기능 강화와 해독작용에 좋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의 채소라 해 김치로 만들어 늘 먹으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추 100g당 비타민A는 0.5mg, 비타민C는 37mg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타민B₁, B₂가 풍부해 쌀밥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수 있다. 특히 부추와 식초를 배합하면 간 보호와 피로 해소에 좋다. 올리브 오일은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해준다. 담즙은 소화와 배설작용에 도움을 준다. 체내의 해로운 독소를 받아들이는 지질도 공급해주므로 간으로 가는 독소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한 마늘은 간 효소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고, 브로콜리의 비타민C 등도 간에서 해독 효소를 증가시켜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호두의 글루타티온과 오메가3 지방산 역시 해독작용에 도움을 준다.

연말 잦은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간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대표음식은 사과, 부추, 콩나물국 등이다.



©동아일보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알코올과 알데히드 분해효소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대표 음식으로는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나물국, 유해산소를 없애는 메티오닌이 풍부한 북엇국, 간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한 조갯국 등이 있다. 또 알코올 분해 과정을 돕거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촉진하는 꿀물, 녹차 등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

건강한 음주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곧바로 위벽과 간을 자극해 몸에 해로우므로 되도록 식사 후 술을 마시도록 한다. 또 술을 마실 때는 수시로 물을 마셔 장 속의 알코올 농도를 열게 만들면 좋다. 침 속에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데 술을 마신 후 그냥 자면 알코올과 알코올 속의 각종 발암물질이 남아 구강 점막과 식도 등에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한다. 무엇보다 과음을 줄이고 적정량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대한가정의학회 알코올연구회가 발표한 '한국인 적정 음주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성인 남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알코올 섭취량은 와인 약 150ml, 양주 약 45ml, 맥주 360ml(작은 병맥주 1병), 생맥주 500ml, 막걸리 250ml(한 사발), 20도짜리 소주는 90ml(4분의 1병) 정도다. 이보다 더 마시면 과음에 해당하며 지방간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G**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시행 휴면계좌 조회·이체·해지 편해졌다



12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시연·협약식에서 관계자가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은행권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인포’가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어카운트인포는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을 통해 한눈에 조회하고, 이 중 소액 비활성계좌는 타 계좌로 간편하게 잔고를 이전한 후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된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가 대상이다.

소비자는 인터넷 누리집(www.pay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만 가능하다.

계좌 내역 조회는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수시입출금식, 정기에·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로 구분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30만 원 이하’의 소액,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이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에 대해선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잔고 이전은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일부만 할 수는 없고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은행권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잔고 이전 수수료를 면제해줄기로 했다. 증권계좌, 펀드 등의 해지자금이 입금되는 연계계좌는 이전 서비

스 대상이 아니며, 실행 취소 기능이 없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한편 어카운트인포는 마이너스통장 여부와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특정 계좌가 조회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비활성 계좌 소액 잔고 기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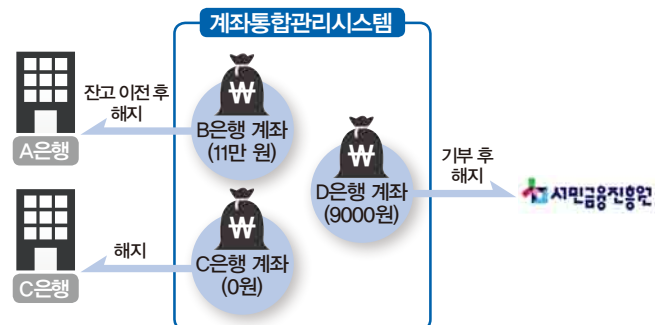
시행 4일 만에 50만 명 26억 원 잔고 이전

서비스 시행 4일 차인 12월 12일 오후 1시까지 약 5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비활동성 계좌 42만 개(약 26억 원)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행 첫날에는 21만 명이 조회했고,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주말(12월 10, 11일)에도 17만 명이 들어와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해지된 계좌의 잔고 약 26억 원 중 25억9000만 원가량은 다른 계좌로 이전됐고, 약 1500만 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됐다.

내년 4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은행 창구에도 조회 서비스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비활동성 계좌 수가 전체 계좌의 44.7%에 육박하고, 잔액은 14조4000억 원에 달해 사회적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계좌는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 송금으로 원치 않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은행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해 전산 관리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잔고 이전·해지 서비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독감

예방접종 필수... 증상 의심되면 즉시 병원 방문



12월 12일 대전 을지대병원이 호흡기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로 붐비고 있다.

박섿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겨울철 반갑지 않은 손님, 독감이 올해는 더 빨리 찾아왔다. 12월 8일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이후로 가장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2012절기(9월계에서 이듬해 8월) 이후 매년 12월 독감 환자가 늘어나 1월 초 유행주의보 기준을 넘고, 2월 즈음에 최고점을 찍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2월 초에 유행주의보 기준을 넘어섰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상기도염 증상보다 두통, 근육통, 38℃ 이상의 고열, 오한 등 전신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올해 이례적으로 12월 초 독감주의보 발령

손씻기 등 생활습관 개선 중요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2009년 크게 유행한 바 있다. 지난해 독감 전체 진료인원은 약 85만 명으로, 이 중 13%가 입원 진료를 받았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23.1%), 영유아의 경우 5명 중 1명(17%)이 독감에 걸렸을 때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임산부와 만성 내과질환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며 중증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하상미 상근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독감을 증상이 심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독감과 감기는 다른 질환”이라며 “독감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기는 아무리 심해도 1~2주 지나면 호전되지만 독감은 폐렴, 뇌염·뇌수막염, 패혈증 같은 중증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필수적이다. 60세 이상과 5세 미만에서는 60% 내외, 젊고 건강한 성인은 80~90% 예방 효과가 있다. 100% 예방이 아니라 해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 치료, 중환자실 치료나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사망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권한다. 또한 유행 시기에는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독감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항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소아 등 고위험군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 비염, 인후염 등 감기 증세만 있다면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고열을 동반하는 독감이나 폐렴, 요로 감염 등 세균성 감염 질환이라면 병을 치료한 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외출했다 귀가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할 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등 안정을 찾아야 한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조기 투여하기도 한다. 또 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만큼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G**

독감 예방법

- ▶ 겨울이 오기 전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필수. 독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입원 치료, 중환자실 치료나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 ▶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할 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등 생활습관에 주의를 기울여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 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만큼 독감 환자 등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한다.

코로 마신 들숨 기억력 증진 ‘숨쉬기 운동’도 심신에 藥

김창엽
자유기고가

● “요즘 운동 좀 하고 지내니?” “뭐, 하기가 하지.” “무슨 운동?” “하하, 숨쉬기 운동.” 평소 이렇다 할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농담으로 ‘숨쉬기 운동’을 한다며 농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십중팔구 상대가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정색하고 제기할 수 있는 의문 한 가지. 그렇다면 숨쉬기는 정말 운동이 아닐까? 아니, 전혀 운동이 되지 않을까? 운동을 활발한 몸놀림이 수반되는 신체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면 숨쉬기는 운동 속에 낄 수 없다. 하지만 운동을 정신 건강을 위한 것, 예컨대 스트레스를 날리고 심적 안정 등을 취하며 두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충전 활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숨쉬기도 어엿한 하나의 운동 혹은 스포츠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숨쉬기를 마음과 정신, 나아가 마음이나 정신 상태와 연관된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결의 요소로 인식하는 대표적 활동으로는 명상을 꼽을 수 있다. 명상에서 숨쉬기, 즉 호흡은 다소 과장하면 명상의 시작과 끝이다. 즉 제대로 된 명상이라면 무엇보다 호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호흡을 중시하는 명상은 심신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하나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명상의 과학성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나 관심도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명상과 심신 건강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과학적 연구 사례도 흔치 않다. 물론 기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명상이 심신의 건강에 득이 된다는 식의 추론 등은 간헐적으로 제기돼왔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호흡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끄는 건 이런 배경도 한몫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의과학자들은 수술을 받을 예정인 간질 환자 7명의 두뇌에 전극을 꽂고 뇌 전류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숨을 들이쉴 때 기억력, 감성 등과 관계된 뇌의 특정 부위의 전류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발견을 바탕으로 정상인 60명을 대상으로 호흡과 기억력, 감성 등의 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평소 의식하지도



©shutterstock

최근 미국에서는 들숨을 쉴 때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명상은 호흡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심신 건강 운동이다.

못한 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호흡의 놀라운 면모들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들숨을 쉴 때 본 사물 등을 더 잘 기억해낸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또 피험자들은 들숨을 쉬면서 본 두려운 표정의 얼굴을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날숨 때 본 장면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떨어지고, 들숨을 쉬고 보았더라도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놀란 모습 등을 인지하는 데는 날숨 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들숨이라도 기억력 향상이나 두려운 표정에 대한 인지의 증대는 코를 통해 공기를 흡입했을 때만 이뤄진다는 점도 드러났다.

바꿔 말해 들숨의 ‘긍정적’ 효과는 입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들숨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변연계가 후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라는 점을 코로 숨 쉴 때만 기억력 향상 등이 뒤따르는 이유로 추정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이번 실험과 연구는 호흡이 심신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드문 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를 통한 들숨이 기억력, 정서 조절 등과 연관된 주요 두뇌 부위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운동으로서 호흡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로 평가된다. **G**

감정은 창의적 사고의 엔진 비이성적 능력에 주목해야

윤용근
위클리 공감 기자

●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폴게티박물관에 미술 거래상이 찾아와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그리스 조각상 하나를 보여줬다. 그 조각상은 키가 족히 2m는 되는 별거벗은 청년이 왼쪽 발을 살짝 앞으로 내민 쿠로스상이었다. 거래상은 1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박물관 측은 작품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1년 넘게 전자현미경, 질량 분석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대리석상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직전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전임 관장이 조각상을 볼 기회가 생겼다. 그는 첫눈에 조각상이 '새것'임을 알아챘다. 또 다른 전문가인 아테네고고학협회 회장도 조각상을 본 순간 '은몸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추가 조사 결과 조각상은 로마의 위조 공장에서 만든 위조품이었다. 전문가들의 오랜 감각과 직관, 직감이 위조품을 알아낸 것이다.

우리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진 아니다'라는 느낌을 간혹 경험한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도 우리는 직감적 느낌을 무시하고 이성에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무릎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 그때 그 느낌을 믿었어야 했는데,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아!"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비이성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다. 저자는 직감, 무의식, 감정 영역의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한다. 또한 이성이 우리가 믿는 것만큼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며 직감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논쟁적 연구 결과들을 보여준다.

"과학이 오랜 세월 우리의 비이성적 측면을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 과학이 우리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과학은 우리를 단편적으로밖에 모른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우리의 자아상은 엄청나게 다양해졌고 변했다. 여기에 학자들이 인간의 비이성적인 힘을 발견했다."

알고 보면 감정의 힘은 크다. 감정은 상황에 맞는 생각과 판단을



지금 그 느낌이 답이다

바스 카스트 지음 | 장혜경 옮김 | 갈매나무 | 248쪽 | 1만4000원

하도록 인도한다. 감정은 또한 창의적 사고의 엔진과도 같다. 감정의 변화는 새로운 시선과 인식을 만든다. 창의성은 어떤 것을 다르게 보고 접근하는 것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예술가나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감정과 싸우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광기나 우울증으로까지 치달는 심한 감정 기복에 시달린다. 감정의 기복은 현실을 늘 다르게, 새롭게 보는 그들의 재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현대인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창의적 사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성의 잔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더는 이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억눌렸던 비이성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 안의 숨어 있던 탁월한 능력, 비이성적 능력에 주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

실은, 마음이 없었다

● 경기 일산 마두도서관 사거리에는 빨간 우체통이 있다. 그곳은 그냥 지나치는 장소였지만, 산책을 하거나 외출을 하면서 가끔 ‘우체통에 넣을 편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편지 한 장 쓸 일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 간 남자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면서 우체통이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집 따님이 물었다. 이 동네에서 10년 이상 살았는데 따님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우체통을 보지도 않은 것 같았다.

나와 함께 그 자리를 확인한 따님은 밤늦도록 편지지에 마치 일기를 쓰듯이 편지를 써서 다음 날 새벽 우체통까지 걸어가 편지를 넣었다. 따님이 편지를 쓰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 정성스럽게 봉투에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표를 자세히 보게 되었다. 390원짜리 우표는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다. 지금 내 책상 위에 따님이 쓰다 남은 우표가 있다. 우표는 한 장씩 떼어내기 좋게 테두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자리를 천공(穿孔)이라고 부른다.

그래, 우표에는 천공이 있다. 천공이 없다면 매번 번거롭게 칼과 자가 필요할 거다. 천공은 매우 유용하다. 우표가 떨어질 때 나는 ‘도도독’ 소리도 기억에 오래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소리가 재미있어 새 우표를 일부러 뜯어내기도 했다. 천공 자국이 남아 있는 우표를 보면서 우리들의 추억도 우표처럼 천공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살면서 추억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을 네모진 우표처럼 잘 뜯어낸다. 그 시절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도안을 한 우표를 붙인 편지나 엽서를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풍요롭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간관계에도 천공이 있다. 연말연시에 모임을 끝내고 서로 헤어질 때, 연인들이 결별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관계를 이어주던 천공 자국은 도드라지게 남게 된다. 동그란 천공이 절반으로 나뉘어 붙어 있는 편지봉투의 우표처럼 우리들도 만나면 헤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우표처럼 천공이 있어야 헤어지기가 덜 힘들 거다. 우리들은 영원히 헤어지기 싫은 마음 때문인지 천공을 만들길 싫어한다.

하지만 그 자리는 세월이 가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

다. 내가 알고 지낸 사람과의 천공이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아마도 헤어지는 순간에 우표를 뜯어내는 느낌처럼 서로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빨간 우체통까지 걸어가 편지를 보내는 그 마음이 아닌가 싶다. 편지는 서로 떨어진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하다. 문득 윤동주의 ‘편지’라는 시가 떠오른다.

누나! / 이 겨울에도 /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 눈을 한 줌 넣고 /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 말쑥하게 그대로 / 편지를 부칠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 눈이 아니 온다기에.

전국적으로 공중전화가 사라지고 있고 우체통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시대가 변해도 우리들의 정서에 필요한 원시적인 감정들이 있다. 동네 우체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딸아이가 빨간 우체통을 매일 찾는 것을 보면서, 타인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은 밤늦도록 한 자 한 자 펜으로 적는 정성스러운 편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우표와 우표를 이어주고 있는 천공을 보면서 내가 지난 한 시절 보낸 편지들이 지금은 저 눈으로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아주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둘 떠올렸다. 그들은 내 기억에 천공 자리를 내고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 우체통에 넣을 편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 마음을 이제 되살리고 싶다. 우체통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 **G**

원재훈
작가

시간급
6,470원

2017년
최저임금

2017. 1. 1 ~ 2017. 12. 31 적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액은 얼마 인가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최저임금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2017년1월 개통

www.gosims.go.kr

e나라도움은 국민을 위한 행복·희망 도우미입니다.

국고보조금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입니다

국민행복
국민희망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중복·부정 수급 방지 ☒ 보조금업무 효율화 ☒ 대국민 서비스 제고